

## 문제은행

1. **해설**

[출제의도] 선어말어미의 기능 및 의미 이해하기

ㄹ의 '-으셨-'은 '-(으)시-'와 '-었-'이 축약된 것이다. '-(으)시-'가 '높임'을, '-었-'이 '시제'를 나타내는데, 둘이 함께 쓰일 때는 '높임 - 시제' 순으로 배열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힌트보기

2. **해설**

1. 어법의 문제에 <보기>의 자료로 제시된 내용을 확인한다.

문제에 제시된 자료는 문장 성분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서술어의 자릿수 및 필수 성분에 대한 개념이다. 이러한 내용을 답지에 주어진 언어 자료에 적용하도록 한다.

2. <보기>의 내용을 답지에 적용하여 답지의 내용이 <보기>의 자료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① ㉓는 '그는'(주어), '빵을'(목적어), '훔쳤다'(서술어)라는 3개의 주성분과, '허기진'(관형어), '결국'(부사어), '빵집에서'(부사어)라는 3개의 부속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㉔에서 '삼다'는 '누가'(주어) '무엇을/누구를'(목적어) '무엇으로'(부사어)라는 3개의 성분이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③ ㉕는 '나는'(주어), '경찰이'(보어), '아니다'(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④ ㉖에서 '닭았다'는 '아버지와'라는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문장이 성립된다.

⑤ ㉗에서 '영수야'는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인 독립어이다.

3. **해설**

14.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이해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담화가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화자의 의도 표현 등과 관련된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③의 '구경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라는 의문문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를 때라는 담화 상황을 볼 때 길을 묻는 의도가 직접 드러난 발화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아, 목마르다.'는 귀가한 후 누나에게 발화한 상황으로 볼 때 '물을 달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추운 교실이라는 상황에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발화한 것으로, 창문이 열린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창을 닫게 하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의문형으로 표현되었지만, 동생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옷을 빌려 달라는 동생에게 빌려주기 싫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추운 겨울 선생님을 맞이하면서 하는 발화 상황

임을 고려할 때 '차를 드시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해설**

양태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라)에서 '자장면이나'에 조사 '이나'가 나타내는 양태는 '점심에 자장면을 먹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니지만, 즉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는 심리 상태'이다. 따라서 '자장면을 점심으로 가장 좋게 생각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을걸'은 김 과장이 부산에 도착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확인을 못해 확신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구나'를 통해 B가 휴가 다녀온 것을 A가 몰랐다가 비로소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과연'은 의문형에 쓰여 '결과에 있어서도 참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즉 어떤 사실에 대해 미심쩍어 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곤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앞에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라는 말이 있어 그가 취직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 '과연 ~ 있을까?'라는 말에 부정적 추측이 담겨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⑤ '-다고'를 사용하고 어순을 바꾸어, 그 사람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해설**

[해결전략]

문법적 개념 확인하기

→

개념 적용하기

→

문법성 판단하기

○ ㄱ, ㄴ : 필수적인 성분의 개념

○ ㄷ : 주어, 서술어 외에 부사어도 필수적인 성분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

○ ㄹ : 관형어 생략 가능성 여부

○ ㅁ : 필수 성분의 누락 여부

③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필수 성분이 아닐 때가 많지만, ㄷ과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성분이 될 수 있음.

② 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을 찾으면 주어인 '학생들이', 목적어인 '점심을', 서술어인 '먹는다'임. 그러나 '식당에서'라는 부사어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아님.

[오답이 원인 분석]

오답의 원인은 1차적으로 문장의 필수 성분이나 생략해도 되는 수의적 성분에 관한 문법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2차적으로는 용례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문항에서 필요한 개념은 필수적 문장 성분이 누락되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없게 된다는

## 문제은행

점이다. 주어-서술어, 주어-목적어-서술어, 주어-보어-서술어 등과 같이 문장 형식에 따라 필수적인 성분은 달라진다.

### [매력적인 오답이 근거 찾기]

- ③ 부사어는 필수 성분이 아닐 때가 대부분이지만, ㄷ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적인 성분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예) '나는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다.'에서 '어머니께'는 부사어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 ⑤ ㄹ도 오답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는 '모른다'의 주어이지만, '개통되다'의 주어는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개통되다'의 주어는 '도로가, 지하철이' 정도가 될 것이다.

6. **해설**

**단일 구성 성분 파악의 탐구 과정**

㉠은 연속된 구절이 하나의 단일 성분처럼 쓰이는 것으로 '안긴문장(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ㄱ-c처럼 연속된 구절 중에서 일부 어구를 생략하면 비문이 되어 버린다.

**오답 피하기**

- ① ㄱ-a를 보면, ㉠은 문장 내의 다른 곳으로도 이동이 가능할 때가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ㄴ-a를 보면, '키가 크시다'와 '걸음이 빠르시다'처럼 유사한 구조의 구절이 동일 문장 안에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ㄴ-b를 보면, 안긴문장의 주어 '키가'와 서술어 '크시다' 사이에 부사어 '무척'을 삽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7. **해설**

**관형어의 특성 파악**

관형어의 개념, 성립과 쓰임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의 용례에 적용, 관형어의 특성을 살펴보는 문제이다. ㉠의 '모든'의 경우는 조사나 어미가 붙어서 형성된 관형어가 아니라 '모든' 그 자체가 관형사에 해당하므로 <보기 1>의 '(2)-나'에 해당하는 관형어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보기 1>의 '(2)-다'에 의거하여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된 관형어이고, ㉡은 '(2)-가'에 의거하여 조사가 붙어 성립된 관형어이다.
- ② ㉢과 ㉣에서는 관형격 조사를 생략해서 '땀', '봄 하늘'로 써도 문장이 성립된다.
- ④ ㉤의 '고운'은 '곱다'라는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성립된 관형어이다.
- ㉥은 '(2)-라'에 의거하여 '운동화' 없이 쓰이지 못하고 '운동화를'과 위치를 바꾸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8. **해설**

**지시 관형사의 이해와 적용**

㉢의 '다른'은 서술어 기능이 없이 뒤의 '분'을 꾸미므로 관형사이다. 그러나 ㄹ의 '다른'은 '이것이 그것과 다르다.'는 문장의 서술어로 관형사형을 취해 '물건'을 꾸미고 있으므로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ㄱ의 '이'는 지시 관형사, '두'는 수 관형사이다. '이 두 사람'이라고 하지, '두 이 사람'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이'는 근칭으로, '저'는 원칭으로 쓰인다.
- ③ 지시 관형사에는 고유어 외에도 한자어도 쓰인다. '모(某) 외에도 '본(本)', '당(當)', '차(此)', '귀(貴)', '타(他)' 등이 있다.
- ⑤ ㄹ의 '이'는 뒤에 피수식어가 없다. 즉, 관형사가 아니라 수식의 기능이 없는 대명사로 쓰였다. 그래서 '이' 뒤에 조사 '는'이 붙은 것이다.

9. **해설**

**[서술어의 자릿수 이해와 적용]**

모든 문장에서 주어는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이다. (가)의 '가다'는 '나는 간다.'와 같이 주어 하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그리고 (나)의 '보다'와 (다)의 '드리다'는 '무엇을' 보고, 드리는지가 문장에 나와야 하므로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다)의 '드리다'는 '누구에게' 준 것인지가 나와야 하므로 부사어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나)의 '보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다)의 '드리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꼭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한편 (라)의 '되다'는 '얼음이'와 같은 보어를 꼭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10~14]

10. **해설**

**규칙 활용의 이해**

**풀이**

㉠은 '다 먹(고 나서) 버렸다'는 의미이므로 합성 용언이 아니어서 띄어쓴 것은 예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먹어버렸다'의 경우 합성 용언이 아닌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이다. 따라서, 합성 용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한 예가 아니다.

11. **해설**

**과거 시제에 관한 이해의 적절성 평가**

**풀이**

㉢은 '느끼-+-었-+-었-+-는데'이므로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을 두 번 겹쳐 사용한 것이며, 이렇게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를 중복하여 사용하면 현재와 강하게 단절된 사건이나 기억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을 이렇게 만들어 '사라졌었구나.'로 변화시키면 문맥의 의미가 어색해진다. 마치 한때 사라졌던 나무가 지금은 다시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 문제은행

① 첫째 문장에서 시간 부사어 '예전에'가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듯, 둘째 문장 맨 앞에 '당시에는' 같은 부사어를 넣어서 그 문장을 '당시에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큰 기쁨을 느꼈었는데'처럼 만들어도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② ㉠은 '오--+-았--+-을'이고, ㉡은 '버리--+-었--+-을까'이다. 그런데 ㉠에 '-았-'이 쓰이고, ㉡에 '-었-'이 쓰인 것은 바로 앞의 어간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②는 타당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은 동사 어간 '보-'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은 동사 어간 '삼-'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되어 과거 시제를 실현한 것이다.

④ ㉤의 '예쁘-'는 형용사 어간이고, ㉥의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따라서, 형용사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 뒤에 '던'을 결합하면 과거 시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은 적절하다.

12.

**해설**  
어법의 이해  
풀이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주어) + 없다(서술어)'의 형태이므로 하나의 서술어로 볼 수 없다. '(내가) 그에게 책을 빌려 주다.'라는 절에서 '빌려 주다'에 관형형 어미 '-ㄹ'이 붙어 '빌려 줄'이 되어 뒤의 '생각'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밑줄 친 부분은 '관형절로 안긴문장'에 해당한다.

13.

**해설**  
보조사에 대한 탐구 학습의 적절성  
풀이

대화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을 이야기 할 때는 보조사 '-은/는'보다 주격 조사 '-이/가'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누가 안 왔니?'라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을 표시할 때는 '철수가 안 왔어요.'와 같이 주격 조사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답 피하기**  
① ㄱ은 보조사가 여러 격에 두루 쓰인다는 설명을 보여 주고 있는 예문이다.  
②, ③, ⑤ 보조사 '-은/는'이 사용된 예문을 통해 이 보조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한 결과이다.

14.

**해설**  
의문문의 특성 이해  
풀이

ㄹ의 '너한테 장난감 하나 못 사 줄까?'라는 문장은 겉으로 나타난 의미와는 반대되는 뜻을 지닌 의문문으로, 강한 긍정의 진술을 내포하고 있다. ㄴ의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라는 문장은 감탄의 뜻을 지닌 의문문이다. 그러므로 ㄹ과 ㄴ에는 명령의 의미를 지닌 의문문은 없다. 참고로 '학교에 빨리 가지 못하겠니?'와 같은 의문문의 경우는 명령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ㄱ과 ㄴ은 청자에게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ㄱ은 언제 집에 왔는가를 설명해야 하고, ㄴ은 왜 집에 갔는지를 청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② ㄷ은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인데, 청자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한다.

③ ㄹ의 의문문은 '너한테 장난감을 사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굳이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⑤ ㄴ의 문장에서 종결 어미 '요'가 빠져도 문장은 성립된다. 다만 '요'가 생략되면 높임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15.

**해설**  
감탄문의 이해  
'아이고, 추워라!'는 '춥다'라는 형용사에 '-어라'가 붙어 이루어진 문장으로,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반면에 '네가 벌써 대학생이 되어라!'라는 문장은 비문이다. 여기서 '되어라'는 동사인 '되다'에 '-어라'가 붙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라'는 동사에 붙어 감탄문으로 쓰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밝구나 / 밝구먼 / 밝구료'는 상대 높임법에 따라 각각 '해라체 / 하계체 / 하오체'에 해당하는 감탄문이다.  
②, ④ '아이고 추워라'와 같이 '-어라'는 청자와는 무관한 화자의 독백에 쓰인다. '철수가 추워라'와 같이 주어가 화자 이외의 사람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형용사인 '밝다'에 감탄형 어미 '-구나'가 붙을 때는 '밝다'의 어간 '밝-'에 직접 '-구나'를 붙여 '밝구나'가 된다. 그러나 동사에 붙일 때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인 '-는-' 뒤에 붙는다. 가령 '되다'의 경우 어간 '되-'에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는-'을 붙이고 '-구나'를 붙여 '되는구나'가 된다.

16.

**해설**  
관형사와 접사의 구별  
㉠의 '새집', '새싹'에서 '새'는 접사가 아니다. 이 두 단어는 '새'라는 관형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합성어이기 때문이다. ㉡의 '새'는 접사(접두사)이므로, ㉠과 ㉡의 '새'는 서로 다르다.

**오답 피하기**  
① ㉠의 '새'는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 또는 '사용하거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의 뜻을 지닌 관형사이다. 이에 반해 ㉡은 '매우 질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며, ㉢은 '모양', '상태',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이들 상호 간에는 의미의 유사성이 없다.

17.

**해설**  
단어 용법의 이해  
**정답 찾기**  
㉠와 같이 동사의 명사형으로 쓰인 단어는 주어를 서술하며 그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있다. <보기>의 '잠으로써'는 '형'이라는 주어를 서술하고 있으며, 그 앞에 '내리'라는 부사가 쓰이고 있다. ㉠도 '웃음'이 '그녀'라는 주어를 서술하고 있으며, '웃음' 앞에 '활짝'이라는 부사적 표현이 쓰이고 있으므로 동사의 명사형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파생 명사이다. 동사의 명사형을 찾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단어를 '~는 것'으로 바꾸어 보는 방법이 있다. <보기>의 '잠으로써'는 '자는 것으로써'로, ㉠의 '웃음으로써'는 '웃는 것으로써'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8.

해설

의문형의 이해

정답 찾기

(다)는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듣는 상대방을 고려하여 상대높임법을 써야 한다. 그러나 (라)는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혼잣말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라)가 아닌 (다)가 높임법을 고려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가)는 권유의, (다)는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가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다고 봐야 한다.
- ② (가)는 상대방의 의증을 묻는 것이고, (라)는 혼잣말하는 것이다.
- ③ (나)는 구체적 시간으로 대답해야 하지만, (가)는 '예'나 '아니오'로 대답해야 한다.
- ④ (다)는 특별한 대답이 아니라 창문을 닫는 것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19.

해설

합성어의 종류와 이해

정답 찾기

'부술'은 부사, '비'는 명사이다. 우리말에서 부사는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순이기 때문에 부사가 직접 명사를 수식한 '부술비'의 경우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배열 방식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보아야 한다.

20.

해설

부정문의 이해

부정문의 유형은 길이에 따라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 의미에 따라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못'과 '안'은 짧은 부정문, '-지 못하다'와 '-지 않다'는 긴 부정문이다. '못'과 '못하다'는 능력 부정을, '안'과 '않다'는 의지 부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 '못'과 '못-'이 부분 부정을 나타낸다고 설명한 ㉠은 옳지 않다.

21. 해설

용언의 활용

'부르다'는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르 불규칙 활용'이란 '부르다 → 불러'와 같이 어간의 끝 음절 '르'가 'ㄹ'로 줄고,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뀌는 활용 형식을 말한다. '모르다 → 몰라', '흐르다 → 흘러' 같은 예가 여기에 속한다. 한편 '부르다'의 명령형은 '불러라'가 일반적이고, '부르너라'는 쓰지 않는다.

<참고> '-거라', '-너라'의 활용에 대한 학교 문법의 입장

불규칙 활용 중에서 '-거라' 불규칙은 그동안 '가다, 자다, 일어나다'와 같은 일부 자동사에 붙는 것으로 보아 '-아라 / -어라' 규칙형에 대응되는 불규칙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미 이들도 '가라, 자라, 일어나라'와 같이 '-아라 / -어라'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거라' 불규칙은 비현실적 문법 기술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었다. 따라서 '-거라 / -너라'는 장년, 노년층에서나 쓰이는 세대 방언형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거라' 규칙형에 대하여 '오다'만이 '-너라' 불규칙을 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문법서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실어 '-거라' 규칙형에 대해 '-너라' 불규칙을 두고 있다.

22. 해설

능동 및 피동 표현의 이해

능동 표현을 모두 다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잡초가 부지런히 철수에게 뽑혔다.'로 되는데, 이런 표현은 어색하다. 서술어를 꾸미고 있는 부사어 '부지런히' 때문에 피동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② '잡혔다'를 '풀어졌다'처럼 고치면 '잡아졌다'가 되는데, 이런 표현은 어색하다.
- ③ '풀리다'처럼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된 피동문을 짧은 피동, '풀어졌다'처럼 '-어지다', '-게 되다' 같은 방식으로 실현된 피동문을 긴 피동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풀렸다', '풀어졌다' 모두 성립하며, 뜻도 차이가 없다.
- ⑤ ㉠을 능동문으로 바꾸려면 주어를 '못'으로 할 수는 없다. '못'이 '못'을 거는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굳이 능동문으로 바꾼다면 '(부주의한 내 동작이) 내 옷을 못에 걸었다.'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표현은 현실적으로 쓰지 않는다.

23. 해설

능동문과 피동문의 특성 추리

피동문의 부사어에는 조사 '~에'나 '~에게'가 사용된다. 이때 조사의 선택은 조사 앞의 단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서술어가 선택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 앞의 단어가 사물인 경우에는 '~에'가, 사람인 경우에는 '~에게'가 선택된다.

오답 피하기

- ① '잡다' / '잡히다', '흔들다' / '흔들리다' 등

- ③ '연이 나무에 걸렸다.'라는 피동문은 그와 짝이 되는 능동문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나무가 연을 걸었다.'의 형태가 되는데, 이런 문장은 가능하지 않다.
- ④ '이기다'의 피동은 '이김을 당하다.'의 의미를 가져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피동사가 없으므로 반대의 의미를 지닌 '지다'를 사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드러낸다.
- ⑤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바람이'가 '바람에게'로, '나뭇가지'가 '나뭇가지가'로 바뀐다.

### 24. 해설

#### 청유문의 특징 이해

화자와 청자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어도 청유문은 성립한다. <에서 높임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의 '예쁘자'가 성립하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청유문에서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쓸 수 없다.
- ② 청유문의 주어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포함된다. 그래서 구어에서는 흔히 주어를 생략한 채 사용하는데, 그래도 무방하다.
- ④ 청유문은 시간 표현에 제약이 있어서 현재 시제 말고 '-었-, -더-, -겠-'과 함께 나타나는 일이 없다.
- ⑤ 청유문이 간접 인용될 때에는 원래의 종결 어미가 '-자'가 아니어도 '-자'로 바뀐다. '놀아 봅시다'를 간접 인용할 때, '놀아 봅시다'고 제안했다.'는 비문이다. '놀아 보자고 제안했다.'로 어미를 '-자'로 바꾸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것이다.

### 25. 해설

#### 높임 표현의 이해

화자가 주체보다 높임의 대상인 문장은 '동생이 나보고 놀자고 보냈다.' 하 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화자가 주체보다 낮다. 그리고, 화자가 청자보다 낮춤의 대상인 문장은 '-부니다'로 종결된 두 문장이다. 나머지는 화자가 청자에 비해 높임의 대상이거나 동등한 관계이다. 따라서 잘못 표시한 곳은 모두 4개이다.

### 26. 해설

#### 국어의 복수 표현에 대한 탐구 결과의 적절성 평가

㉔의 첫 번째 예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복수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음을 나타내며, 두 번째 예는 '사람'이 복수 접미사와 결합해 복수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세 번째 예는 문맥적으로 특정한 상황이 전제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는 '사람'이 복수 접미사와 결합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더욱이 두 번째 예인 '사람들'은 첫 번째 예처럼 '사람'이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사람'이 문맥에 따라서 복수 접미사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① ㉔을 보면, 수사인 '셋', 단위 명사인 '명' 뒤에 복수 접미사 '들'이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 ② ㉔은 '너'에 '-희'만 붙여 '너희'만으로도 복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

만, '너희'에 '-들'이 붙은 '너희들'이라고 해도 복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물'이나 '시간'은 본질적으로 나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복수 접미사가 결합하지 못한다.
- ⑤ '-들'은 '공부'라는 명사 뒤에 붙거나, '여기', '어서'와 같은 부사 뒤에 붙어 서술어의 주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27. 해설

#### 문장 구조의 이해 및 적용

#### 정답 찾기

㉔은 얼핏 보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이루어진 것 같으나 반복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출문장이 아니다. 즉 '그는 이 고장에서 태어났고, 그는 평생 동안 이 고장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라는 문장에서 '그는'이 반복되었으므로 뒤에 오는 문장의 주어를 생략한 겹문장이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28. 해설

#### 문법 탐구

#### 정답 찾기

우리말로 '해돋이'는 '해돋이>해도디>해도지'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받침 'ㄷ'이 초성으로 가기 때문에 'haedodi'가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i' 앞의 'd'가 'j'가 되기 때문에 'haedoji'가 된다. 그러므로 명령 중 <, <이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 적용되면 'haedoti>haedochi'로 변화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29. 해설

#### 관형어의 기능 이해와 적용

<보기>로 볼 때 관형어는 '웃', '풍경', '일부' 등의 체언을 수식한다.(㉔) 그리고 <을 통해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㉔) 그리고 <을 통해 체언('책임')에 관형격 조사('의')가 결합되어 관형어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㉔)

#### 오답 피하기

㉔은 <의 경우 관형어를 생각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㉔은 <을 살펴볼 때 '시골'이라는 체언과 '풍경'이라는 체언이 의미상 동격이 아닌데도 관형격 조사가 생략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0. 해설

1. 자료에 제시된 어법 지식을 이해한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사어나 관형어 같은 부속 성분은 문장에서 생략이 가

능하지만,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이들 성분을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가]와 [나]에서 부사어가 필수 성분으로 쓰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 어법 지식을 답지에 적용한다.

① [가]와 [나]의 밑줄 친 성분은 모두 '다르다, 주셨다, 삼으셨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어이다. '일찍이'의 경우, 이 말과 꾸밈을 받는 서술어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부사어이다. ② [가]와 [나]를 보면, '다르다'는 '...은 ...과 다르다', '주다'는 '...은 ...에게 ...을 주다', '삼다'는 '...은 ...을 ...으로 삼다'라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다르다'는 두 자리 서술어, '주다'와 '삼다'는 세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와 [나]를 비교하면, [가]의 밑줄 친 부분이 [나]에서 모두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나]의 밑줄 친 말을 생략해 보면 문장이 구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주치다'는 주어와 '-과'라는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효'이므로,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질 때에는 당연히 필수 성분 중심의 문장을 영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3. 답지에서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

②의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의 수효를 확인해 보면, '다르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주다', '삼다'는 세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31.

해설

어법의 이해 및 적용

[정답풀이]

의존명사는 '-ㄴ(은/는)', '-ㄹ(을/를)' 등의 여러 가지 관형사형과 결합이 자유로우나 주어성 의존명사와 서술성 의존명사는 극히 제약되어 있다. 주어성 의존명사는 주격 조사와 통합되어 주어로 주로 쓰이는 의존명사로 '지, 수' 등을 일컬으며, 서술성 의존명사는 서술격 조사와 통합되어 서술어로 주로 쓰이는 의존명사로 '뿐'이 대표적이다. 이들 의존명사는 특정 관형사형과만 결합한다. 그러나 ㉠의 '대로'는 주어성 의존명사나 서술성 의존명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형사형과의 결합이 자유롭다. '대로'는 '지친 대로', '지칠 대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관형사형과 결합하는 데에 ㄱ, ㅂ의 '지'나 '수'처럼 제약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ㄴ의 '데'는 '곳'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의 '것'은 '물건'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③ '만큼'이나 '대로'는 보조사 '은/는' 또는 '도'와 결합하기도 하지만 <보기>의 예와 같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은 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④ ㄱ의 '지'는 '가'하고만 결합된다. 그리고 ㉠의 '뿐'은 '이다'하고 결합되어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ㅂ의 '통'도 '에'하고만 결합한다.

⑤ 의존명사는 자립명사와 달리 관형어가 선행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32.

해설

조사의 특성과 쓰임 이해

<보기>는 조사 '와'의 쓰임을 정리하여 ㄱ~ㄴ과 같은 쓰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a~c에 적용해야 하는데 a는 '사과'와 '배'를 모두 좋아한다는 의미이므로 ㄱ처럼 '앞뒤 명사를 모두 가리킬 때' 쓰인 경우이다. b에서는 '아이'와 싸우고 있는 중임을 나타내므로 '함께 어떠한 일을 하고 있거나 어떠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ㄴ의 예이다. c는 '동생'과 '언니'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비교의 대상이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ㄴ의 예이다.

33.

해설

청유문의 특징 이해

화자와 청자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어도 청유문은 성립한다. ㄴ에서 높임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ㄴ의 '예쁘자'가 성립하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청유문에서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쓸 수 없다.

② 청유문의 주어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포함된다. 그래서 구어에서는 흔히 주어를 생략한 채로 사용하는데, 그래도 무방하다.

③ 청유문은 시간 표현에 제약이 있어서 현재 시제 말고 '-었-', '-더-', '-겠-'과 함께 나타나는 일이 없다.

⑤ 청유문이 간접 인용될 때에는 원래의 종결 어미가 '-자'가 아니어도 '-자'로 바뀐다. '놀아 봅시다'를 간접 인용할 때, '놀아 봅시다'고 제안했다.'는 비문이다. '놀아 보자고 제안했다.'로 어미를 '-자'로 바꾸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것이다.

34.

해설

종속적 연결 어미의 쓰임 이해

①의 용례에서 사용된 '-으면'은 현실과 다른 사실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현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거나 그렇지 않음을 해석해하는 뜻을 나타낸다.

35.

해설

관용적 표현의 이해와 적용

④에서 '손'은 문맥적 의미상 신체적인 의미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관용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손이 크다'가 관용적 용법으로 활용이 되려면, '썸썸이가 후하고 크다'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손이 큰 어머니는 친구가 오면 언제나 음식을 푸짐하게 차리곤 하셨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의 '불을 끄다'는 화재를 의미하는 1차적 의미가 아니라, '급한 일을 처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②의 '어깨'는 '무거운 책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깨가 무겁다'는 것은 '책임으로 인해 마음에 부담이 크다'는 의미로 쓰인다.

③의 '가슴이 아리다'는 신체를 의미하는 '가슴'이 아린 것이 아니라, 의미가 확장되어 '몹시 가엾거나 측은하여 마음이 알알하게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⑤의 '목구멍에 풀칠하다'는 '굶지 않고 겨우 살아간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문제은행

36. 해설

**부사어의 기능 탐구와 적용**  
 ㄷ의 '멋지게'는 '멋지-'라는 어간에 '-게'라는 어미가 붙어, ㅅ의 '확실히'는 형용사 어근인 '확실'에 '-히'라는 접미사가 붙어 부사어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ㄱ의 '다르다'나 ㄷ의 '생기다'와 같은 두 자리 서술어는 필수적으로 부사어를 요구하므로, '고추와' '멋지게'의 부사어는 생략할 수 없다. 이를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② ㄴ에서 '매우'가 '높이'라는 부사를, ㅂ에서 '아주'가 '새'라는 관형사를 꾸며 준다.

④ '과연' 같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어의 경우 비교적 자리 옮김이 자유롭다.

⑤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어는 대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다. '과연'은 생각과 실재가 같음을 확인하는 심리를, '확실히'는 틀림없이 그러하다는 심리를 나타낸다.

37. 해설

**지시 대명사의 기능 이해 및 적용**  
 지시하는 대상이 이야기 장면에서 실재할 때, 물리적으로 말하는 이에 가까이 있는 대상에는 '이', 듣는 이에 가까이 있는 대상에는 '그',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에는 '저'가 사용된다.

**오답 피하기**

① 대화의 장소에는 '이 책, 그 책, 저 책' 세 권의 책이 있다.

② '이, 그, 저'는 친숙한 정도에 따라 쓰임이 결정되지 않는다.

⑤ 병찬의 '이 책'과 나연의 '그 책', 병찬의 '그 책'과 나연의 '이 책', 나연의 '저 책'과 병찬의 '저 책'은 지시 대상이 같다.

38. 해설

**어법에 맞는 표현 구분하기**  
 ②는 수식하는 범위의 문제가 아니다. 즉, '좋아하다'를 수식하는 말을 잘못 사용하여 의미가 모호해진 것은 아니다. 좋아하는 주체와 객체의 구조적 모호성, 즉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강조하여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누구나'를 강조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박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이 되고 '다'를 강조하여 말하면 박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을 모두 좋아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모호성은 수식 범위가 아닌 구조적인 모호성 때문이다.

39. 해설

**어법의 이해**

**정답 찾기**  
 <보기 1>은 부사어의 기능 및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어가 있는가 하면 특정 성분만을 꾸미는 부사어도 있고, 생략할 수 있는 부사어가 있는가 하면 절대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도 있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한 후에, <보기 2>에 제시된 예문들에 적용해 보면 된다. ㄹ과 ㅂ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 부사어이기는 하지만 ㄹ은 타동사를, ㅂ은 자동사를 취한 경우이다. 물론 이런 경우 외에도 '나는 어머니와 닮았다'의 '닮았다'처럼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ㄱ~ㄷ에 쓰인 부사어들은 하나의 성분을 꾸미고 있고 필수적 성분이 아니므로 생략할 수 있다.

② ㄴ의 '아주'처럼 '관형어, 부사어, 체언'을 한정하여 수식하는 부사들이 <보기 1>에 제시된 위치 이동에 제한이 많은 경우이다.

③ ㄱ, ㄴ, ㄹ은 부사 자체로 부사어가 되는 경우지만, ㄷ은 '무척'이라는 부사에 '이나'라는 보조사가 붙은 경우이고, ㄹ은 '영희'라는 체언에 '에게'라는 부사격 조사, ㅂ은 '반장회'라는 체언에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실현된 경우이다.

④ ㄹ의 '설마'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어이다.

40. 해설

**인용절의 용법 이해**  
 ㄱ처럼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시간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내일'이 '오늘'로 바뀐 것은 발화시가 '지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④). 또 ㄴ처럼 인용문에 나타나는 대명사가 조정되기도 한다. 직접 인용문에서는 인용절의 주어와 전체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지만, 간접 인용문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이다(①). ㄷ처럼 높임의 단계가 조정되기도 한다. 직접 인용절에서의 '하십시오체'가 간접 인용절에서는 '해라체'로 바뀌었다(③). ㄹ처럼 직접 인용문에서 요청을 의미하는 '주다'는 간접 인용문에서는 '달라'로 바뀐다(②). 그렇지만 직접 인용문이 간접 인용문으로 바뀐다고 인용절 이외의 다른 절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41. 해설

**문장 구조의 이해**  
 ㄴ의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안긴 문장은 동격 관형절로 그 자체가 뒤의 '사실'이라는 체언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생략되는 성분이 없다. 이 외는 달리 관형절에는 관형절 안의 성분과 이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일치해서, 관형절 안의 성분이 탈락한 형태로 나타나는 관계 관형절도 있다.

**오답 피하기** ①<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 문장이다.

② ㄱ의 밑줄 친 부분은 부사어, ㄴ의 밑줄 친 부분은 관형어, ㄷ의 밑줄 친 부분은 목적어의 구실을 하고 있다.

③ ㄱ의 밑줄 친 부분은 상위문의 주어 '그는'과 동일하여 하위문의 주어가 생략된 것이다.

⑤ ㄷ의 밑줄 친 부분은 명사절로,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이루어졌다.

42.

해설

[정답풀이]

②의 '철수는 철학책을, 영희는 소설책을 읽었다.'는 서술어가 '읽었다'로 하나이지만 이는 표면상 하나일 뿐 '역사를 읽었다 + 미술사를 읽었다'의 두 문장을 결합시키면서 동일한 서술어가 쓰여 서술어 하나를 생략한 것이다. 따라서 주술 관계가 2회이므로 출문장이 아니라 대등적으로 이어진 겹문장이 된다.

[오답풀이]

- ① '마주쳤다'는 것은 혼자 마주칠 수는 없고 반드시 두 사람이 마주치는 법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출문장이 된다.
- ③ '철수는 그의 형과 다르다'는 것은 절의 형태이다. '~달리'로 부사절 역할을 한다.
- ④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루어졌으므로, 두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졌다.
- ⑤ 철수도 학생이고 영희도 학생이라는 의미이므로, 이는 겹문장 중에서 접속 조사로 이어진 문장이다. 또한 철수는 영어도 구사할 줄 알고 독일어도 구사할 줄 안다는 의미이므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 경우 전자는 접속 조사로 이어진 것이 주어 역할을, 후자는 접속 조사로 이어진 것이 목적어 역할을 한다.

43.

해설

[조사 및 어미의 의미 및 특성 파악]

[풀이]

'2-(1)'은 '동생이 상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배탈이 났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어미 '-고'가 앞의 내용이 뒷내용의 이유가 될 때 사용된 것이다. 앞서 제시된 행위로 이루어진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2-(3)'의 '-고'이다. '2-(3)'의 '-고'는 '목도리를 하다'와 '장갑을 끼다'를 연결해 나열의 의미도 나타내고 있지만, '목도리를 한 채로', '장갑을 낀 채로'로 나가라는 지속의 의미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1-(1)'은 '고'가 명사 뒤에, '1-(2)'는 조사인 '에서' 뒤에, '1-(3)'은 어미인 '-으나' 뒤에 결합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1-(1)'은 '친구, 부모', '1-(2)'는 '집에서, 학교에서' 등을 나열할 때 사용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고, '2-(3)'은 '목도리를 하는 행위', '장갑을 끼는 행위' 등을 나열할 때 사용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정말로 영희가 좋으나'는 인용절이다.
- ④ '싸다'와 '비싸다'라는 대립적 관계의 의미를 지닌 말들을 연결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44.

해설

문장 구조의 이해

ㄱ의 밑줄 친 부분이 '운동'을 꾸미려면 '어떤' 또는 '어떠한' 같은 내용이 와야 하는데 밑줄 친 부분은 '운동'을 꾸며 주는 '어떤', '어떠한'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즉 관형절이라고 볼 수 없다. 밑줄 친 부분은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 역할을 수행하는 부사절이다.

오답 피하기

- ⑤ ㄷ의 밑줄 친 부분은 '내가 먼저 알고 있었다'라는 문장에서 '알고 있었다'의 목적어가 되고 있다.

45.

해설

[높임법의 이해]

[풀이]

(2)를 보면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께'라는 조사와 '드리다'라는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4)의 경우 주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께서', '잡수신다', '진지'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④는 부사어로 나타난 대상을 높이기 위해 높임의 의미를 지닌 명사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보기 2>의 사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3)의 두 번째 문장의 경우, 청자인 '할머니'가 주체인 '아버지'보다 높기에 '아버지가'라고 하여 주체 높임을 쓰지 않았다.
- ② '께서'는 (1), (3), (4)에서, 선어말 어미 '-시-'는 (1), (3), (4)에서, 특정한 높임말은 (2),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4)에서 '해(하다)', '잡수시다(먹다)'의 두 서술어가 사용되었는데, 뒤의 서술어만 높이고 있다.
- ③ (5)의 '게시다'는 주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법에, '있으시다'는 높임의 대상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법에 사용한다.
- ⑤ (1), (4)는 '-니다', (2), (3)은 '-니다'를 통해 상대 높임법을 드러내고 있다.

46.

해설

[어법의 이해와 활용]

[풀이]

ㄴ과 ㄷ은 행위가 바뀌었지만 주어가 동일한 경우이고, ㄹ은 '운동하다'라는 행위가 동일하지만 그 주체가 달라져 주어가 바뀐 경우이다. 따라서 'ㄴ'의 앞뒤 문장은, '행위'가 바뀐 경우에는 주어가 같아야 하며 '주체'가 바뀐 경우에는 당연히 주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출다가 덩다가', '운동하다가'에서 '-다가'가 용언(형용사, 동사)의 여간에 붙는 연결 어미임을 알 수 있다.

47.

해설

12. 목적어의 쓰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목적어'의 쓰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탐구하는 문항이다. ㉠은 '먹었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목적어로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된 '빵을'이 사용되었다. ㉡은 '마실까?'라는 서술어의 목적어로, 목적격 조사대신 보조사 '가'



나'가 결합된 '우유나'가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 ㉡의 경우 목적어가 생략되면 문장이 불완전해지므로 목적어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먹었다'와 '보시고'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목적어로 '빵을'과 '모습을'이 사용되었다. ② ㉠에서 목적어 '빵을'은 주어의 뒤, 서술어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서는 목적어 '모습을'이 주어인 '어머니께서'의 앞에 위치하고 있다. ④ ㉢에는 목적어 '빵을'이 사용되었으나 ㉣은 목적어 없이 주어와 서술어로만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 ⑤ ㉤의 '빵' 뒤에는 '을'이, ㉥의 '우유' 뒤에는 '를'이 사용되고 있다.

### 48. 해설

문법 탐구

정답 찾기

이 문제는 사이시옷의 규정에 대해 용례를 중심으로 탐구 학습하는 문제이다. '윗쪽, 아랫쪽'이 맞지 않는 이유는 '위+물'[원물], '위+집'[위집]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음운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것이지, '위, 아래'와 모두 결합하는가 여부에 따라 쓰는 것은 아니다. 만약 ③이 맞다고 하면 '아랫방'도 '윗방'이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되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하루 동안'은 띄어쓰기를 하는 두 개의 단어이다. 사이시옷은 두 개의 말이 하나의 단어가 된 합성어에서 사용한다.
- ② '님'은 이름이나 직위 등의 뒤에 붙여서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접사이다. '해님'은 접사가 붙은 파생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 ④ '피자집'은 외래어와 우리말의 결합, '전세방'은 한자어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는 '한자어+순우리말' 또는 '순우리말+순우리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⑤ 해+살[해살], 해+빛[해빛], 아래+방[아래방]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소리 날 때 사이시옷을 쓴다.

### 49. 해설

종결 표현의 이해

우리말에서 종결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말의 종결 표현은 종결 어미에 따라 평서문(다), 의문문(느냐,냐), 명령문(어라/아라), 청유문(자), 감탄문(구나)으로 나뉜다.<보기>의 '3가'에 쓰인 종결 어미 '(으)ㄹ라'는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조심하라고 경계 명령을 전달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명령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3나'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이므로 청유형 문장이다. 그런데 ⑤의 설명 중, '문장의 주어는 듣는 이가 되고, 서술어로는 동사만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은 명령문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유문은 주어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포함된다. 그러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1가'는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다.

② '1나'는 물음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긍정을 내포하는 수사 의문문(또는 반어 의문문)이다.

③ '2가'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명령문이다.

④ '2나'에 쓰인 종결 어미 '어라'는 본래 명령형 어미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과 함께 올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50. 해설

인용 발화의 이해

해설 <보기>에 따르면 '인용 발화'는 '어떤 사람의 말을 남에게 전달하는 말'이다. 그런데 ①의 경우 자신의 기쁨을 듣는 이에게 말하는 것으로, '-답니다'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여 표현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에 인용 발화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②의 '-답니다'는 '-다고 합니다'의 준말로, 자신이 알거나 들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누군가에게 들은 열차 연착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 ③ 역시 다른 사람에게 들은 바깥의 날씨를 전달하고 있다.
- ④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⑤ '그 나라의 풍습'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51. 해설

[정답풀이]

'철수는 연극을 좋아한다'와 '영희는 영화를 좋아한다'는 대등적 연결 어미 '-고'로 이어진 문장이다. 서술어(좋아한다)가 중복되어 하나만 사용되었지만 주어는 분명히 두 개다. 따라서 이 문장은 겹문장이다.

### 52. 해설

어구의 호응 관계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앞의 어구와 결합하거나 호응할 수 있는 말들의 결합 양상을 판단해 보는 문제이다. '결론'은 '내리다', '짓다'와 결합하고, '하다'와 결합할 수 없다. '결말'은 '맺다'와 가장 잘 어울리며, '결정'은 '하다', '내리다' 등과 결합하지만, '맺다'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이를 볼 때, 각 어구와 잘 결합된 내용을 제시한 것은 ①이다.

### 53. 해설

파생 접사를 이용한 새말 만들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여러 파생 접사의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

항이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한과장이'라는 새말을 만들었는데,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한과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쓰기에 적합하다.

[오답피하기] ① '-지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것인데, 어떤 것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의미에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의미로, '그것을 자주 하다'의 의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③ '멋있게 잘 하다'의 의미에 '-꾸러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장이'는 특별한 기술과 관련된 것이기에 농담을 많이 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54. 해설

한글 맞춤법의 이해와 적용

해설 ④ '큰 지 작은 지'에서의 '지'는 어미 '-니지'의 일부이므로 어간에 붙여 '큰지 작은지'라고 써야 한다. 또 '떠난지'에서의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떠난 지'라고 띄어 써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들었을 뿐이다'에서의 '뿐'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하고, '실력뿐'에서의 '뿐'은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② '예상했던 대로'에서 '대로'는 의존 명사이고, '약속대로'에서의 '대로'는 조사이다.

③ '화를 낼 만도'에서의 '만'은 의존 명사이고, '웃기만 할 뿐'에서의 '만'은 조사이다.

⑤ '들릴 만큼'에서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무명만큼'에서의 '만큼'은 조사이다.

55. 해설

[재귀 대명사의 이해와 적용]

④의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로 쓰인 대명사이다. 만약에 '아들 내외가 또 사정을 하러 집에 찾아왔지만 저희가 뭐라 해도 절대 봐 주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경우라면 '저희'가 재귀 대명사로 쓰인 것이다.

[오답피하기]

재귀 대명사는 선행하는 3인칭 주어를 먼저와 다음없이 가리키는데, 넓은 의미로는 '당신, 저, 저희, 스스로, 자신' 등이 재귀적 용법으로 쓰인다. ①의 '제'는 '저의'의 준말이므로 재귀 대명사 '저'를 포함하고 있고, ②의 '자기'는 '내 여자 친구'를, ③의 '당신'은 '아버님'을, ⑤의 '스스로'는 '고위 공직자'를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들이다.

56. 해설

객체 높임법의 이해

②의 경우,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만나 보다' 대신 '뵙다'라는 특

수한 동사를 사용하였고 '(할머니께) 여쭙어 보아라.'에서는 생략된 부사어 '할머니께'를 높이기 위해 '여쭙다'라는 특수한 동사를 사용했다.

오답피하기

① '있으시겠습니까'는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다. 이 문장에서 '말씀'을 높인 것은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다.

③ 듣는 이를 존중하여 주체가 말하는 이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높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압존법이라고 한다.

④, ⑤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말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다.

57. 해설

어법의 적절성 파악

'ㄷ'의 앞문장의 '보다'는 '나'라는 대명사에 붙어 '너'와 '나'를 '비교'하는 관계를 표시하므로 조사이고, 뒷문장의 '보다'는 '나은'이라는 용언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오답 피하기

① 'ㄱ'의 앞문장의 '만큼'은 (주로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앞의 내용에 상당하는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의 의미로 사용된 의존 명사이고, 뒷문장의 '만큼'은 '(체언이나 조사의 바로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의미로 사용된 조사이다.

② 'ㄴ'의 앞문장의 '얼'은 '아름에 하나를 더한 수.'의 의미로 사용된 수사이고, 뒷문장의 '얼'은 '아름에 하나를 더한 수의.'의 의미로 사용된 관형사이다.

④ 'ㄹ'의 앞문장의 '아니'는 '(용언 앞에 쓰여)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의 의미로 사용된 부사이고, 뒷문장의 '아니'는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의 의미로 사용된 감탄사이다.

⑤ 'ㅁ'의 앞문장의 '거기'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의 의미로 사용된 대명사이고, 뒷문장의 '거기'는 '산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58. 해설

[출제의도] 연결어미 이해하기

ㄹ의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에서 앞의 주어는 '비가'이고, 뒤의 주어는 '제가'로 앞뒤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ㅁ에서도 역시 앞의 주어는 '비가'이지만, 뒤의 주어는 명령형일 때에는 '네가', 청유형일 때에는 '우리가'로 앞뒤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에서 언급한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59. 해설

어휘의 의미와 용법

<보기>에서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관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라도 서로 붙여 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간'의 '간'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의존 명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이들간'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이들'에 접미사 '간(間)'이 결합된 말이므로 파생어에 해당한다.
- ③ '곳간'은 '곳집, 곳간'을 의미하는 '고(庫)'에 '장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간(間)'이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 ⑤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동안'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간'을 붙여 '80일간'으로 써야 한다.

### 60. 해설

#### [정답공략]

1. 어법 지식을 활용하여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  
형태가 같은 단어의 품사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2. 자료 제시형 문제라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자료에 대해 이해한다.  
형태는 바뀌지 않고 품사만 달라지는 것을 '품사의 통용'이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아야 품사를 정확하게 구별해 낼 수 있다.
3. 어법 지식과 자료 이해를 바탕으로 답지 내용에 대해 판단한다.  
①에서는 '잘못'이 명사와 부사로, ②에서는 '대로'가 명사와 조사로, ③에서는 '크다'가 형용사와 동사로, ⑤에서는 '평생'이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모두 '품사의 통용'의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④는 두 문장의 '높다'가 모두 형용사로 쓰였으므로 '품사의 통용'과는 무관하다.

### 61. 해설

#### [정답공략]

- 1.<보기>의 규정 내용을 적절하게 해석한다.  
㉔는 첩어의 경우, 두음 법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몇 단어들에 대한 언급이다. 예외라는 점에서 특별한 예를 들고 있으므로 이 예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㉕는 두음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음절에 적용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잘 이해해야 한다.
- 2.<보기>의 규정과 각 낱말의 연결이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보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①의 '유유상종'은 제2음절의 경우 '류'라고 써야 하나, ㉔의 규정에 따라 '유유'를 사용한다. ②의 '누누이' 역시 같은 규정의 적용이다. 그러나 ③의 '낭낭'은 ㉔의 그 밖의 것은 제2음절 이하에서 본음대로 적는 규정에 따라 '낭낭'이라고 적는 것이 적절하다. ④의 '몰이해'는 ㉕에서 접두사처럼 사용되는 '몰' 뒤에 있으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이며, ⑤의 '연이올'은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의 예이다.

### 62. 해설

#### 상대높임법의 이해

병은 갑에게 '안녕하세요?'라는 두루높임의 해요체를 사용하였고, 정 역시

갑에게 '어서 오세요.', '들었어요.'와 같이 두루높임의 해요체를 사용하였으므로 높임의 정도는 똑같다.

### 오답 피하기

- ① 병은 갑에게 '안녕하세요?', 정은 갑에게 '어서 오세요., 들었어요.'와 같은 두루높임의 해요체를 쓰고 있다. 해요체는 비격식체이다.
- ② 을은 갑에게 '오게, 얼마만인가?'의 하계체를 사용하였고, 아내인 정에게는 '인사 나누오.'라는 하오체를 사용하였다.
- ③ 갑은 스승인 을에게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라고 하여 아주높임인 하십시오체를 쓰고 있다. 또한 스승의 부인인 정에게도 '그간 안녕하셨습니다?'라고 하여 하십시오체를 쓰고 있다. 그러나 스승의 아들인 병에게는 '많이 컸어? 반가워.'라고 하여 두루낮춤의 해체를 쓰고 있다.
- ⑤ 을은 제자인 갑에게 '어서 오게, 얼마만인가?'라고 하여 예사낮춤의 하계체를 쓰고 있고, 자식인 병에게도 '인사드려, 김 박사님이야.'라고 하여 두루낮춤의 해체를 쓰고 있다. 즉, 을은 갑과 병을 모두 낮추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인 정에게는 '인사 나누오.'라고 하여 예사높임의 하오체를 쓰고 있어서 아내는 높여 말하고 있다.

### 63. 해설

#### 15. 파생 접사를 이용한 새말 만들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여러 파생 접사의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항이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한과장이'라는 새말을 만들었는데,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한과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쓰기에 적합하다.

####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지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것인데, 어떤 것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의미에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의미로, '그것을 자주 하다'의 의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③ '멋있게 잘 하다'의 의미에 '-꾸러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장이'는 특별한 기술과 관련된 것이기에 농담을 많이 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 64. 해설

#### 문법 지식의 이해 및 적용

'-아라'와 '-어라'는 앞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나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음운론적 이형태이지만, '-거라', '-너라'는 특정 용언 어간과만 결합하므로 형태론적 이형태라 할 수 있다.

### 65. 해설

#### [맞춤법 규정의 이해와 적용]

'어떻게 해'에서 '-게'의 모음 '개'가 줄고 나머지 'ㄱ'이 앞 음절의 받침으로

올라붙으면 '어떡해'가 된다. 'ㅎ'을 'ㄱ'이 밀어낸 것은 'ㄱ'이 '-게'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66. **해설**

**표준어 규정**  
 '어른'은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이므로 '윗어른'이 아니라 '웃어른'이 표준어가 된다. 따라서 '웃어른'이 표준어가 되는 것은 ㉔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윗눈썹'은 '윗-'으로 통일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③ 된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④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⑤ '아래돈'이라는 단어가 없으므로 '웃돈'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67. **해설**

**어법의 이해**  
 ㄷ(㉑)은 음운의 규칙성, 즉 비음화 현상의 예외 없는 규칙성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분류가 적절하지 않다. ㄹ(㉒)은 '주다'와 '다오'의 선택 제약성을 말해 주는 것이지 불규칙성을 설명하는 자료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ㄱ(㉓), ㄴ(㉔), ㄴ(㉕), ㅂ(㉖) 모두 적절하다.

68. **해설**

**맞춤법의 이해 및 적용**  
 '생긱이'는 부사 '생긱'에 '-이'가 붙어 있는 형태로, 제25항-2의 규정에 따른 표기에 속한다.

69. **해설**

1. 어법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보기>에 제시된 규정을 확인한다.  
 '수컷'의 '수'는 역사적으로 명사 '수'이었다. 오늘날에도 '수캐, 수탉' 등에 받침 'ㅎ'의 자취가 남아 있다. 표준어 규정에서는 [다만 1]과 [다만 2]에 제시된 이외의 단어에서는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를 '수'로 통일하였다. [다만 1]의 경우 받침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거센소리를 이룬 단어들로서, 역사적으로 복합어가 되어 화석화한 것이라 보고 '수'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 단어까지가 이 유형으로 화석화한 것인지를 경계를 긋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규정에서 나열한 단어에 국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2]의 경우에는 발음상 사이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숫'의 형태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2.<보기>의 규정을 답지에 하나하나 적용한다.  
 ① '숫늬, 숫나사, 숫은행나무'는 [다만 1, 2]에서 제시한 단어가 아니므로 '수늬, 수나사, 수은행나무'가 표준어 규정에 맞는 말이다. ② [다만 1]에서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고 하였으므로, '암강아지, 암캐, 암컷, 암탉' 등도 표준어이다. ③, ④, ⑤ [다만 1]과 [다만 2]를 제시한 것은 여기에 제시된 단어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에 이어 거센소리가 오는 것을 인정하거나 '숫-'이 결합하는 형태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다만 1]과 [다만 2]의 예외적 사례를 표준어로 기억해서 사용해야 한다.

3. 답지가<보기>의 규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인가를 판단한다.  
 [다만 1]의 규정을 '암, 수' 뒤에 'ㄱ, ㄷ, ㅂ'이 이어지는 경우로 일반화해서 안 된다. [다만 1]의 의미는 이 규정에서 나열한 단어에 국한하여 거센소리가 나는 단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70. **해설**

**어법의 이해**  
 ㉑의 '이번으로'에서 '으로'는 '이번'이라는 시간적 범위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간을 생할 때 생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오답 피하기**  
 ① ㉑은 '강릉'이라는 지명과 관련하여 가고자 하는 목적지나 방향을 나타낸다.  
 ② ㉒은 갑자기 내린 '눈 때문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나타낸다.  
 ③ ㉓은 '눈이 덮여 멋진 모습으로' 변했다는 데서 '으로'는 어떤 결과로 바뀌거나 변화했음을 제시하는 기능으로 쓰이고 있다.  
 ④ ㉔에서 '으로'는 회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71. **해설**

**[품사의 이해와 사용]**  
 <보기 1>에 나와 있듯이 ㉑은 '뒹'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이때의 '뒹'은 의존 명사 '뒹이'의 준말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품사는 그대로 의존 명사이다.

**[오답피하기]**  
 ① 용언에 붙어 있는 '뒹'은 어미로 보면 된다.  
 ② 어미 '뒹'은 '뒹이'가 본말이므로 바꾸어 써도 의미에 변화가 없다.  
 ⑤ ㉑을 '뒹'으로 바꾸면 수식 관계에 있는 뒷말 '날씨'와 연결되지 않으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72. **해설**

**띄어쓰기 규정의 이해**  
 '부터'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따라서 ②는<보기>에서 열거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뻘'은 의존 명사이므로, ㄱ의 규정에 의거하여 띄어 쓴 것이다.

- ③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쌈뽠'은 '쌈'과 '뽠'의 두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이므로 ㄷ에 의거하여 붙여 쓴 것이다.
- ④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 ㄴ에 의거하여 띄어 쓴 것이다.
- ⑤ '강추위'는 '강'이라는 접사와 '추위'라는 어근이 합쳐진 파생어이므로 ㄷ에 의거하여 붙여 쓴 것이다.

73. 해설

**표준 발음법의 이해와 적용**  
 '뚜렷하게'는 [뚜려타게]로 발음된다. 받침 'ㅅ'이 /ㄷ/으로 발음되고, 다시 뒤의 'ㅎ'과 결합하여 /ㅌ/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제12항 1의 [붙임 2]에 해당한다. '많은'은 [마 : ㄴ]으로 발음된다. '많은'은 '많-'이라는 어간의 받침 ㄴ 뒤에 관형사형 어미인 '-은'이 결합된 말이다. 모음 '으'와 결합되었으므로 제12항-4의 규칙에 따라 받침 'ㄴ'의 'ㅎ'은 발음하지 않는다.

74. 해설

**어미와 접미사의 구별**  
 해설 '잠1'은 접미사가 붙어 명사로 파생된 것이다. 그 앞에 관형어 '깊은'을 넣어도 문장이 성립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잠2'는 '영희가 잠을 자다'라는 서술성을 지닌 것으로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관형어가 올 수 있으면 파생 명사이다.  
 ③ '깊은'이라는 관형어가 '잠'을 수식하고 있다.  
 ④, ⑤ ㄷ의 '잠'은 파생 명사여서 서술성이 없으며, ㄹ의 '웃음'은 부사적 표현인 '크게'의 수식을 받기에 명사형 어미가 사용된, 서술성이 있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75. 해설

**[접사의 의미 분석]**  
 시간이나 장소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해당 시간 또는 장소 근처를 가리킬 때 '쯤,께,경,가량'과 같은 접사를 사용한다. '정도'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들 접사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 'ㄱ~ㄷ'을 살펴보면 '경'은 '특정한 시간이나 날짜에 가까운 때'를 의미하는 말로, '수량의 정도'를 나타낼 때 쓰이면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ㄱ'을 보면, 3월이라는 단어 뒤에 붙어 '시간'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쯤', '께', '경'이 모두 자연스럽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ㄱ, ㄴ'에서 '쯤', '께'는 시간뿐 아니라 공간의 정도를 뜻하는 말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ㄱ~ㄹ'에서 '쯤'에는 어색하다는 표시인 \*가 어디에도 붙지 않았다. 따라서 '쯤'은 시간과 공간은 물론 수량의 정도까지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ㄴ, ㄷ'을 살펴보면 '가량'은 수량의 정도를 뜻할 때는 자연스럽게, 공간의 정도를 뜻하는 말로는 쓰일 수 없다.

76. 해설

**어법의 이해**  
**[풀이]**  
 <보기1>은 부사어의 기능 및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어가 있는가 하면 특정 성분만을 꾸미는 부사어도 있고, 생략할 수 있는 부사어가 있는가 하면 절대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도 있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한 후에, <보기2>에 제시된 예문들에 적용해 보면 된다. ㄱ과 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 부사어이기는 하지만 ㄷ은 타동사를, ㄹ은 자동사를 취한 경우이다. 물론 이런 경우 외에도 '나는 어머니와 닮았다'의 '닮았다'처럼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오답피하기]**  
 ① ㄱ~ㄷ에 쓰인 부사어들은 하나의 성분을 꾸미고 있고 필수적 성분이 아니므로 생략할 수 있다.  
 ② ㄴ의 '아주'처럼 '관형어, 부사어, 체언'을 한정하여 수식하는 부사들이 <보기1>에 제시된 위치 이동에 제한이 많은 경우이다.  
 ③ ㄱ, ㄴ, ㄹ은 부사 자체로 부사어가 되는 경우지만, ㄷ은 '무척'이라는 부사에 '~이나'라는 보조사가 붙은 경우이고, ㄹ은 '영희'라는 체언에 '에게'라는 부사격 조사가, ㄴ은 '반창회'라는 체언에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실현된 경우이다.  
 ④ ㄹ의 '설마'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어이다.

77. 해설

**어법에 맞게 표현하기**  
 '법석'은 제5항의 'ㅂ' 받침 뒤의 된소리에 해당하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석'이 맞는 표현이다. '태줄'은 제30항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 앞 말이 모음으로 끝났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쫄]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잇소리를 받치어 적은 '태줄'이 맞는 표현이다. '짚우라기'는 제20항의 적용으로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은 경우이므로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푸라기'가 맞는 표현이다.

78. 해설

**의미에 따른 어휘의 적절한 사용**  
**해설** ①의 경우 앞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의 뜻으로 쓰였으므로 '잘되다'를 쓰는 것이 맞고, 뒤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의 뜻으로 쓰였으므로 '안되다'를 쓰는 것이 맞다.  
**오답피하기**  
 ②의 '안된다'는 '된다'를 부정하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안 된다'로 띄어 써야 한다.  
 ③의 '잘되는'은 '예스럽거나 쉽게'의 뜻을 지닌 부사 '잘'을 써서 '잘 되는'으로 띄어서 써야 한다.  
 ④와 ⑤의 앞 문장에서는 '잘되다'를 쓰는 것이 맞고, ⑤의 '안 되는'은 '안 되는'으로 붙여서 쓰는 것이 맞다.

79.

해설

질문과 답변의 원리 이해

[풀이]

④의 경우 D의 갑의 물음처럼 부정 의문문으로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 속에 긍정의 가정이 담겨 있으면, 이에 대한 답변은 긍정 찬동(예, 정말 산호 같아요.)이나 부정 반대(아니오, 산호 같지 않는데요.) 둘 중의 하나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④의 "예, 산호 같지 않는데요."는 이러한 대화 형식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이처럼 실제의 장면을 보면서 물을 때는 부정 물음(공부 안 하니?)이 불가능하다.
- ② 이처럼 실제 장면에 부정의 내용이 전제되어 있으면 긍정 물음(식사 하세요?)이 불가능하다.
- ③ 이처럼 부정 의문문으로 표현된 물음에 대한 답변은 부정 찬동(예, 아직 못 읽었습니다.)이나 긍정 반대(아니오, 벌써 읽었습니다.)의 표현이 가능하다.
- ⑤ 갑의 물음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더라도 긍정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을 때는 부정 물음(경미도 안 왔어?, 경미도 오지 않았어?)이 불가능하다.

80.

해설

[어미 '오'와 어미 '요' 및 조사 '요'의 의미와 기능 이해]

⑤에서 '요'는 '모르겠어?'의 해체 뒤에 붙어서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곧, 청자가 아저씨라서 그를 높이기 위해서 붙인 말이다. '요'가 없어도 의문문의 형식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의 '요'는 전혀 의문의 뜻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피하기]

- ①의 '요'는 둘 다 보조사로, 모두 생략해도 '마음은 더없이 좋아.'와 같이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만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보조사 '요'를 말의 종간과 끝에 붙인 것이다.
- ②의 '요'도 문장의 끝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 ③은 연결형이므로 '이요, 아니요'가 된다. 영어의 "YES"와 "NO"에 해당하는 긍정과 부정의 대답은 '예, 아니오'가 맞다.
- ④와 같이 '오'가 종결 어미로 쓰일 때, '설명, 의문, 명령, 청유' 등의 문장이 될 수 있는데, ④의 예문은 명령형 문장이다.

81.

해설

[정답공략]

- 1. 어법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보기>에 제시된 규정을 확인한다. '수컷'의 '수'는 역사적으로 명사 '꿨'이었다. 오늘날에도 '수개, 수탉' 등에 받침 'ㅎ'의 자취가 남아 있다. 표준어 규정에서는 [다만 1]과 [다만 2]에 제시된 이외의 단어에서는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를 '수'로 통일하였다. [다만 1]의 경우 받침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거센소리를 이룬 단어들로

서, 역사적으로 복합어가 되어 화석화한 것이라 보고 '꿨'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 단어까지가 이 유형으로 화석화한 것인지의 경계를 긋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규정에서 나열한 단어에 국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2]의 경우에는 발음상 사이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숫'의 형태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2. <보기>의 규정을 답지에 하나하나 적용한다.

- ① '숫늬, 숫나사, 숫은행나무'는 [다만 1, 2]에서 제시한 단어가 아니므로 '수늬, 수나사, 수은행나무'가 표준어 규정에 맞는 말이다. ② [다만 1]에서 접두사 '앙'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고 하였으므로, '앙강아지, 앙개, 앙컷, 앙탕' 등도 표준어이다. ③, ④, ⑤ [다만 1]과 [다만 2]를 제시한 것은 여기에 제시된 단어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에 이어 거센소리가 오는 것을 인정하거나 '숫-'이 결합하는 형태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다만 1]과 [다만 2]의 예외적 사례를 표준어로 기억해서 사용해야 한다.

3. 답지가 <보기>의 규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인가를 판단한다.

[다만 1]의 규정을 '앙, 수' 뒤에 'ㄱ, ㄷ, ㅂ'이 이어지는 경우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다만 1]의 의미는 이 규정에서 나열한 단어에 국한하여 거센소리가 나는 단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힌트보기

82.

해설

1. 문제에 <보기>의 자료로 제시된 내용을 확인한다.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 '명사화 접사'와 '부사화 접사'가 붙어서 새 단어를 만들 때,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답지의 내용을 점검하도록 한다.

2. <보기>의 내용을 답지에 적용하여 답지의 내용이 <보기>의 자료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 ① '달맞이'는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므로 제19항 규정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었다.
- ② '마감'이나 '무덤' 등은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이므로 제19항의 [붙임] 규정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 ③ '일파리'나 '잎아리'가 아니라 '이파리'라고 적는 것은 제20항의 붙임 규정대로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제20항의 [붙임] 규정은 '명사' 뒤에 접사가 붙는 경우에 대한 규정인데, '늬-'은 명사가 아니라 어간에 해당하므로 제20항의 [붙임] 규정이 아니라, 제19항의 [붙임] 규정에 해당한다.
- ⑤ '너머'는 '산 너머 마을'을 '산 넘어 마을'로 적지 않는 것은 제19항의 [붙임] 규정대로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 경우이다.

83.

해설

[출제의도]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문법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③ '온다'는 모두 동사로 사용되어 '품사 통용'에 적용되는 사례로 볼 수 없다.

84. 해설

[객체 높임법의 이해]

㉔의 경우,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만나 보다' 대신 '뵈다'라는 특수한 동사를 사용하였고 '(할머니께) 여쭙어 보아라.'에서는 생략된 부사어 '할머니께'를 높이기 위해 '여쭙다'라는 특수한 동사를 사용했다.

[오답피하기]

- ① '있으시겠습니다'는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다. 이 문장에서 '말씀'을 높인 것은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다.
- ③ 듣는 이를 존중하여 주체가 말하는 이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높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압존법이라고 한다.
- ④, ⑤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말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다.

85. 해설

1. 자료에 제시된 어법 지식을 이해한다.  
<보기>에서는 시간 표현 중 특수한 표현에 해당하는 '실현 인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떤 일이 실현될 것을 인식하거나 실현된 것을 인식함을 나타내는 것을 '실현 인식'이라고 한다.
2.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  
'실현 인식'에 해당하는 사례를 더 찾아보라는 것이 이 문제의 요구이다.
3. 출제 의도를 고려하여 어법 지식을 답지에 적용한다.  
①은 이미 실현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완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②는 도착이 늦게 실현된 것을 표현하는 '실현 인식'이다. 또는 '완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④의 경우는 과거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원 2'의 '-았-'은 엄밀하게 따져 보면 미래의 일이므로 실현될 것을 확실하는 '실현 인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의 경우 '어머니'의 '았'은 과거를 나타낸다고 말하기 어렵다. 실현될 것에 대한 '실현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③의 '온다더라'는 '온다고 하더라'의 준말로, 여기서 '더라'는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많이 온다더라.'의 경우,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은 일기 예보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그대로 옮겨 와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보기>에서 다루고 있는 '실현 인식'의 예로는 적절하지 않다.

86. 해설

국어 조사의 이해

ㄴ의 '과'와 ㄷ의 '와'는 앞말의 의미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과'와 '와'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접속 조사로서, '과'는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 붙고, '와'는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붙는다.

오답피하기

- ① ㄱ의 '께서, 에' 등이 앞말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낸다.
- ② ㄱ의 '께서'는 대상을 높여서 말하는 존대의 의미를 나타낸다.
- ③ ㄴ의 '이'는 '형과 동생'이 결합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⑤ ㄷ의 '만의'에서 '만'과 '의'는 모두 조사인데 이둘끼리 결합해서 '만의'를 형성한 것이다.

87. 해설

어법의 사용

단형 부정을 쓰는 것이 언어의 경제적 현상으로 바람직하지만 단형 부정으로 써서는 어색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답다, -스럽다' 같이 접미사가 결합한 용언은 단형 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신부는 별로 안 아름답다'가 아니라 '신부는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 해야 알맞은 문장이 된다.

88. 해설

어법 규정의 이해와 적용

'유행(流行)'의 '流'는 '류'가, '이발(理髮)'의 '理'는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와서 두음 법칙에 따라 '유, 이'로 적은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제10항 규정과 연관을 지을 수가 없다.

오답피하기

- ② '냥(兩)'과 '년(年)'은 '야'와 '여'가 아닌 '냐'와 '녀'가 그대로 쓰여 두음 법칙의 예외로 쓰였으므로 '제10항-다만' 규정에 해당이 된다.
- ③ '남녀(男女)'나 '은닉(隱匿)'에서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곳에서 '여'나 '이'가 아닌 '녀'와 '니'로 그대로 쓰였으므로 '제10항-[붙임 1]' 규정에 해당이 된다.
- ④ '극락(極樂)'이나 '연로(年老)'에서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곳에서 '나'나 '노'가 아니라 '라'와 '로'로 쓰였으므로 '제12항-[붙임 1]' 규정에 해당이 된다.
- ⑤ '중노동(重勞動)'이나 '비논리적(非論理的)'에서는 단어의 앞에 '중'과 '비'가 쓰여 뒤의 '로'를 '로'로 쓰지 않고 한자가 붙어서 된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노'로 쓰고 있으므로 '제12항-[붙임 2]' 규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89. 해설

접사의 의미 분석

시간이나 장소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해당 시간 또는 장소 근처를

가리킬 때 '쯤, 깨, 경, 가량'과 같은 접사를 사용한다. '정도'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들 접사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 'ㄱ~ㄷ'을 살펴보면 '경'은 '특정한 시간이나 날짜에 가까운 때'를 의미하는 말로, '수량의 정도'를 나타낼 때 쓰이면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ㄱ'을 보면, 3월이라는 단어 뒤에 붙어 '시간'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쯤', '깨', '경'이 모두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ㄱ, ㄷ'에서 '쯤', '깨'는 시간뿐 아니라 공간의 정도를 뜻하는 말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ㄱ~ㄷ'에서 '쯤'에는 어색하다는 표시인 \*가 어디에도 붙지 않았다. 따라서 '쯤'은 시간과 공간은 물론 수량의 정도까지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ㄴ, ㄹ'을 살펴보면 '가량'은 수량의 정도를 뜻할 때는 자연스럽게, 공간의 정도를 뜻하는 말로는 쓰일 수 없다.

### 90. 해설

#### 표준어의 이해

'깨뜨리다'와 '깨트리다'는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여 쓸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내로라하다 :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
- ② '우리'는 '우레'를 한자어로 잘못 알고 쓴 예이므로 '우레'라고 써야 한다. 우레 : 뇌성과 번개를 동반하는 대기 중의 방전 현상. ≡ 천둥
- ④ 머리말 : 책이나 논문 따위의 첫머리에 내용이나 목적 따위를 간략하게 적은 글.
- ⑤ 짜깁기 : 직물의 찢어진 곳을 그 감의 울을 살려 본디대로 흉집 없이 짜서 깎는 일.

### 91. 해설

#### 맞춤법 규정의 이해와 적용

답지로 제시된 단어의 기본형을 생각해 보고, 그 기본형에 관형형 어미를 붙여 보면 쉽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녹슬다, 부풀다, 되물다, 뒹굴다, 낫설다'와 같은 기본형에 관형형 어미를 붙여 보면, '녹슨, 부푼, 되물은, 뒹군, 낫선'과 같이 된다. 이 중 '되물다'는 ㄷ 불규칙 용언으로 '되물어, 되물으니, 되물은, 되물지, 되물고……' 등과 같이 활용한다.

### 92. 해설

#### [표준어의 이해와 적용]

건너편에 있는 마을은 '건너마을'이 아닌 '건넌마을'이다.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에 대한 규정'에서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에는 '아랫니, 텃마당, 텃머리, 잇몸'처럼 'ㅅ'을 받쳐 적어야 한다. 또한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리다'의 의미를 갖는 단어는 '설레이다'가 아닌 '설레다'가 맞춤법에 맞는 표준어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불쌍하고 딱하다'의 의미를 갖는 단어는 '가연다'와 '가연다'가 모두 올바른 표현이며, '전혀 소식이 없는 상황'의 의미를 갖는 단어도 '감감소식'과 '감감무소식' 모두 올바른 표현이다.
- ② '소리가 조금 작은 듯하다'의 의미는 '나즈막하다'가 아닌 '나지막하다'가 올바른 표현이며, '사이시옷에 대한 규정'에서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에는 'ㅅ'을 받쳐 적어야 하므로 '노래가락'이 아닌 '노랫가락'이 올바른 표현이다.
- ④ 감정이나 힘 따위가 속에서 치밀어 오를 때 사용하는 말은 '복받치다'나 '복받치다'가 모두 올바른 표현이며,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용하는 말은 '안절부절하다'가 아닌 '안절부절못하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 ⑤ 과거의 일 등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은 '잊혀지다'가 아닌 '잊히다'가 올바른 표현이며, 잊따라 여러 번 되풀이할 때 사용하는 말은 '연거퍼'가 아닌 '연거푸'가 올바른 표현이다.

### 93. 해설

#### 표준 발음법의 이해 및 적용

'맑지'는 제11항에 따라 겹받침 'ㄹ'이 자음 앞에 온 경우이므로 'ㄹ'을 [ㄱ]으로 발음하여 [막찌]라고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② '밭고'와 '밭지'는 제10항의 '다만' 규정과 제23항에 따라 각각 [밭:꼬]와 [밭:찌]로 발음해야 한다.
- ③ '값이'는 제14항에 해당하므로 [갑씨]로, '여덟'은 제10항에 따라 [여덜]로 발음해야 한다.
- ④ '울고'는 제11항과 제23항에 따라 [읍꼬]로, '읽어야'는 제13항에 따라 [일거야]로 발음해야 한다.
- ⑤ '흙과'는 제11항과 제23항에 따라 [흑과]로, '할아'는 제13항에 따라 [할타]로 발음해야 한다.

### 94. 해설

#### [높임법의 이해]

㉠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고 있으며, ㉡은 '모시고'라는 특수 동사를 사용하여 동작의 대상(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또 ㉢은 '교장 선생님'과 듣는 이를 동시에 높이고 있으며, ㉣은 행위의 주체인 '외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높임의 대상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이다.

### 95. 해설

#### 어법의 이해 및 적용

③의 '이르다'는 '(어디에) 도착하다'의 의미 용법을 지닌 말이므로, '이르다' > '이르러'로 활용하는 '러' 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이르+어>일러'로 활용하지 않고, '이르+어>이르러'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모르다'는 '모르+아>올라'로 활용하므로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② '누르다'는 '누르+어>눌러'로 활용하므로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④ '바르다'는 '바르+아>발라'로 활용하므로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⑤ '가파르다'는 '가파르+아>가팔라'로 활용하므로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96. 해설

11. 음운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국어의 음운 체계, 음운 규칙과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로, 국어 음운의 특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추리해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ㄱ)은 국어 음절('발')을 이루는 초성(ㅂ), 중성(ㅏ), 종성(ㅁ)이 음운이 바뀌는 것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달', '불', '밥')로 실현되며, 이에 따라 의미도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에서 초성 'ㅂ'이 'ㄷ', 'ㅅ' 등으로 바뀔 때 따라('달', '살') 다른 단어가 된다. (ㄴ)의 '눈'은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雪]'을 의미하며, 짧게 발음하면 '신체의 일부인 눈[眼]'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리의 길이도 음운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ㄱ)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지만, (ㄴ)의 소리의 길이는 문자 표기로 나타나지 않는다. ③ (ㄱ)과 (ㄴ)은 음운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라, 음운이 바뀌거나 장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의 의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④ 자음의 경우 초성과 종성에 사용되며, 모음은 중성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ㄱ)이나 (ㄴ)은 음운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감정의 차이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97. 해설

의존 명사와 어미의 구별

<보기 1>에 의하면 '-지'는 의문형 어미로도 쓰이고, 의존 명사로도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경과한 시간(동안)'의 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보기 2>에서 ㄴ의 경우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를, 그리고 ㄷ의 경우에도 그를 만나고 한 달이 지났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두 경우 모두 '-지'가 의존 명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ㄴ과 ㄷ은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한다.

98. 해설

재귀대명사의 이해와 적용

(아)의 경우 명사절인 "영희가 자기를 소중히 여길 것"에서 '자기'는 명사절 안의 '영희' 뿐만 아니라 명사절 밖의 '철수'를 선행어로 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으므로 ⑤의 진술은 타당한 진술이 아니다. (아)의 문장은 중의적

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중 하나가 절 밖의 '철수'가 재귀대명사의 선행어로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⑤의 내용을 일반적인 법칙으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절 밖에서도 선행어를 확인할 수 있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99. 해설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풀이]

'뒷입맛'은 '뒤+입맛'의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이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 30항 1-(3)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예삿일'도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지만, '일(순 우리말)'과 '예사(한자어)'의 합성어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 30항 2-(3)에 해당한다.
- ③ '장밋빛'은 '장미(한자어)+빛(순 우리말)'의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한글 맞춤법 제 30항 2-(1)에 해당한다.
- ④ '제삿날'은 '제사(한자어)+날(순 우리말)'의 합성어이고,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 30항 2-(2)에 해당한다.
- ⑤ '옛나물'은 '예+나물'의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이고,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 30항 1-(2)에 해당한다.

100. 해설

맞춤법의 이해 및 적용

'생긱이'는 부사 '생긱'에 '-이'가 붙어 있는 형태로, 제25항-2의 규정에 따른 표기에 속한다.

101. 해설

[정답공략]

1. 자료에 제시된 어법 지식을 이해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사어나 관형어 같은 부속 성분은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이들 성분을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가]와 [나]에서 부사어가 필수 성분으로 쓰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 어법 지식을 답지에 적용한다.

- ① [가]와 [나]의 밑줄 친 성분은 모두 '다르다, 주셨다, 삼으셨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어이다. '일찍이'의 경우, 이 말과 꾸밈을 받는 서술어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부사어이다. ② [가]와 [나]를 보면, '다르다'는 '...은 ...과 다르다', '주다'는 '...은 ...에게 ...을 주다', '삼다'는 '...은 ...을 ...으로 삼다'라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다르다'는 두 자리 서술어, '주다'와 '삼다'는 세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와 [나]를 비교하면, [가]의 밑줄 친 부분이 [나]에서 모두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나]의 밑줄 친 말을 생략해 보면 문장이 구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주치다'는 주어와 '-과'라는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

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효'이므로,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질 때에는 당연히 필수 성분 중심의 문장을 영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3. 답지에서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

②의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의 수효를 확인해 보면, '다르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주다', '삼다'는 세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 102. 해설

#### 보조 용언에 대한 이해

해설 '따라가고 싶다'에서 '싶다'는 보조 용언으로, 일반적인 경우 붙여 쓸 수도 있지만, ㄴ의 경우에는 '따라가다'가 합성동사이기에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 오답피하기

- ① '나는 잤다'는 가능하지만, '나는 싶다'라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떨어 버렸다'에서 '버렸다'는 종결의 의미를 지닌 보조 동사이며, '쓰레기를 버렸다'에서 '버렸다'는 본동사이다.
- ④ '부르고 있다'는 부르는 행위의 '진행'을, '떠 있다'는 배가 강물에 뜬 '상태'를 의미한다.
- ⑤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 103. 해설

1. 어법 지식을 활용하여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

형태가 같은 단어의 품사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2. 자료 제시형 문제라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자료에 대해 이해한다.

형태는 바뀌지 않고 품사만 달라지는 것을 '품사의 통용'이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아야 품사를 정확하게 구별해 낼 수 있다.

3. 어법 지식과 자료 이해를 바탕으로 답지 내용에 대해 판단한다.

①에서는 '잘못'이 명사와 부사로, ②에서는 '대로'가 명사와 조사로, ③에서는 '크다'가 형용사와 동사로, ⑤에서는 '평생'이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모두 '품사의 통용'의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④는 두 문장의 '높다'가 모두 형용사로 쓰였으므로 '품사의 통용'과는 무관하다.

### 104. 해설

#### 발문의 핵심 파악하기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부사화 접미사 '-이 / -히'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유형의 문항이다. <보기1>은 부사화 접미사 '-이 / -히'를 구별하여 적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보기2>는 부사화 접미사 '-이 / -히'를 구별하기 어려운 예문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보기1>의 기준을 영두에 두고 답지를 읽으면서 <보기2>에 제시된 단어가 <보기1>의 기준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면 쉽게 정답을 판별할 수 있다.

#### 정답으로 길 찾기

자료의 내용을 예문에 적용해서 탐구하는 유형의 문항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면서도 세심하게 답지와 <보기>를 연결해서 파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⑤번 답지에서 '섭섭-'이 첩어이므로 '섭섭이'로 적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보기1>의 기준 ③을 살펴보면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결합한 첩어 뒤에는 부사화 접미사 '-이'를 적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첩어는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결합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섭섭-'에서 '섭'은 따로 떼어서 쓰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는 하나의 단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섭섭-'은 '서운하고 아쉽다'는 의미의 어근이 되고 여기에 접미사 '-하다'가 붙어 독립적으로 쓰이는 '섭섭하다'가 하나의 단어가 된다. 즉, '섭섭하다'는 독립된 하나의 낱말이지 첩어가 아닌 것이다. 또한 '섭섭-'에 '-하다'를 붙일 수 있으므로 '섭섭히'로 적는 것이 옳은 것이다.

#### 매력적인 함정 피하기

어휘나 어법 문제는 기본적인 개념은 미리 알고 있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에 어휘나 어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 ③번 답지의 'ㅂ'불규칙 활용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ㅂ'불규칙 활용은 어간에 'ㅂ'받침이 있는 용언이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받침 'ㅂ'이 '오/우'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기본형 '괴롭다'의 경우 어간 '괴롭-'과 어미 '-어'와 결합하면 'ㅂ'이 모음 '우'로 바뀌어 '괴로워'가 되므로 'ㅂ'불규칙 활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형 '괴롭다'는 어간에 부사화 접미사 '-이'를 붙여 '괴로이'로 적는 것이 옳은 것이다.

### 105. 해설

#### 접사의 기능 이해 및 적용

①의 '나무꾼'은 명사인 '나무'에 접미사 '-꾼'이 붙어서 형성된 말로 '나무꾼' 역시 품사가 명사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공부'라는 명사에 '-하다'라는 접미사가 붙음으로써 동사로 바뀐 예가 된다.
- ③ '기쁘다'라는 형용사 어간 '기쁘-'에 접미사 '-ㅁ'이 붙음으로써 명사로 바뀐 예가 된다.
- ④ '새'라는 관형사에 '-롭다'라는 접미사가 붙음으로써 형용사로 바뀐 예가 된다.
- ⑤ 형용사 '높다'의 어간 '높-'에 접미사 '-이'가 붙음으로써 부사로 바뀐 예가 된다.

### 106. 해설

#### [올바른 외래어 표기]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 또는 부질없거나 시시한 일'을 의미하는 외래어의 바른 표기는 '난센스'이다.

#### [오답피하기]

- ② '신호를 울리는 장치'를 의미하는 외래어는 '부저'가 아닌 '버저'가 바른 표기이다.
- ③ '둘 이상의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 일'을 의미하는 외래어는 '랑데뷰'가 아닌 '랑데부'가 바른 표기이다.
- ④ '잘 싸우자'는 의미로 외치는 외래어는 '화이팅'이 아닌 '파이팅'이 바른 표기이다.

㉔ '현수막'을 의미하는 외래어는 '플랭카드'가 아닌 '플래카드'가 바른 표기이다.

### 107. 해설

어법의 이해

[풀이]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사례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 '서럽다'는 '서러워, 서러우니' 등으로 활용되는 형용사로, '원통하고 슬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용된 예문도 '나는 막내이기 때문에 원통하고 슬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활용 형태와 의미가 모두 올바르게 쓰인 것은 ㉔이다.

[걸림돌 치우기]

- ① 활용은 [밝고, 밝아, 밝으니, 밝지]이다.
- ③ 예문으로는 '가마솥에 물을 붓다.' 등이 적절하다. 모기가 물어서 '붓다'는 것은 '살가죽이나 특정 부위가 부풀어 오르다.'라는 의미이다.
- ④ 활용은 [하야, 하야니, 하야소]이기 때문에, 사용된 예문도 '~ 너무 하야서 ~'라고 해야 한다.
- ⑤ 의미는 맞으나, 활용은 [이르러, 이르니]가 맞다.

### 108. 해설

표준 발음법의 이해 및 적용

정답 찾기

제11항에 따라 '맑지'의 '리'는 [ㄹ]으로, '맑게'의 '리'는 [ㄹ]로 발음해야 하며, 제23항에 따라 '맑지'의 '지'는 [찌]로, '맑게'의 '게'는 [께]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② '밝고'와 '밝지'는 제10항의 '다만' 규정과 제23항에 따라 각각 [밥:꼬]와 [밥:찌]로 발음해야 한다.
- ③ '값이'는 제14항에 해당하므로 [갑씨]로, '여덟'은 제10항에 따라 [여덟]로 발음해야 한다.
- ④ '윤고'는 제11항과 제23항에 따라 [읍꼬]로, '읽어야'는 제14항에 따라 [일거야]로 발음해야 한다.
- ⑤ '흙과'는 제11항과 제23항에 따라 [흑과]로, '활타'는 제14항에 따라 [할타]로 발음해야 한다.

### 109. 해설

문법 현상의 이해

<보기>는 국어의 품사 중 감탄사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여러 용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㉔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글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㉓과 같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글쎄요'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㉓에서처럼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비슷한 어구의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㉔의 '뭐'는 앞선 아들의 발화에 대해 '놀람'의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② ㉔의 '예'는 아버지의 물음에 긍정하는 의미의 감탄사이다. 그렇지만 ㉔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둑판을 사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아버지에게 호소, 설득하는 의미로 쓰인 감탄사이다.
- ④ ㉔의 '음'은 문장의 중간에 쓰였지만,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 전달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또한 다른 문장 성분과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쓰이는 자리의 제한도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음'이 독립어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⑤ ㉔의 '아니요'는 앞선 발화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그런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에서의 '아니'는 '부정'의 의미가 아닌,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인 감탄사이므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10. 해설

어법의 파악

㉔, ㉔, ㉔는 순 우리말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다. ㉔, ㉔는 순 우리말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다. 따라서 같이 묶일 수 있다.

### 111. 해설

서술어의 자릿수 이해

해설 국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란 그 성분을 생략하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없게 하는 성분을 가리킨다. 대개 한 문장의 '서술어'를 확인하면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추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술어는 자연스럽게 의미가 연결될 수 있는 단어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서술어의 선택 제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제 과일이랑 막걸리를 마셨다.'가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은 '과일'은 '마실' 수가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문장은 '어제 과일을 먹고 막걸리를 마셨다.'로 고쳐야 한다. 이는 '먹다', '마시다'라는 서술어의 제약에서 비롯된다.

오답 피하기

- ① '상회하다'의 목적어(예□□ 평균 80점)가 필요하다.
- ② 공무원 열풍이 '무엇에' 장애가 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 ③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어'가 빠져 있다.
- ⑤ 서술어 '여기며 선호하는'의 주체가 생략되어 있다.

### 112. 해설

음운 현상의 구체적 적용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라는 규정에 의하면 '희망'이라는 말은 [희망]으로는 발음될 수 없으며 [희망]으로만 발음되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함도 허용된다. 따라서 '주의'

문제은행

는 [주의] 외에 [주이]라는 발음도 가능하다.  
 ② 조사 '의'는 [기]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따라서 '우리의'는 [우리의] 외에 [우리예]라는 발음도 가능하다.  
 ③ '예, 례' 이외의 '캐'는 [기]로도 발음한다. 그러므로 '시계'의 '계'는 [계] 외에 [게]라는 발음도 가능하다.  
 ⑤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찌, 처]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주목하면, '가지다'라는 용언의 활용형인 '가져'는 [가저]로 발음된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

113. 해설

**어법의 이해와 적용**  
 '영겨들다'는 '여러 가지 물체가 한데 덩이가 저 달라붙다.', '여럿이 한데 무리로 뭉치다.'의 뜻을 가진 말로, <보기>로 보아 '영기다'와 '들다'의 두 동사로 분리되기 어렵다.

114. 해설

**연음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음운이 환경에 따라 변동하는 현상의 하나인 '연음'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설계된 문항이다. <보기>를 통해 연음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참고하여 실제적인 발음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문항이다. 음운의 변동에서 중요한 것은 음운이 사용된 환경이다. 자음으로 끝나는 말 +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 접미사의 경우 연음이 발생한다. '육학년'의 경우, 그 환경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 자음으로 시작되는 명사이다. 연음의 환경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연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학년'의 경우는 'ㄱ, ㄷ, ㅂ, ㅈ'으로 끝나는 말 + ㅎ으로 시작되는 말의 환경에서 'ㅋ, ㅌ, ㅍ, ㅊ'으로 변하는 경우로 '축약'에 해당된다.  
 [오답피하기] ① '여덟'의 받침 'ㄹ'과 '이', '이야'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연결되어 연음의 환경이 충족되므로 [여덜비], [여덜비야]로 발음된다. ③ '걸'과 조사 '으로'가 결합된 것으로, [거트로]로 발음해야 한다. ④ '빛'이 '이', '은'의 조사와 결합된 것이므로, [비치], [비춘]으로 발음한다. ⑤ '밤낮'이 '으로'와 연결될 때는 [밤나즈로]로, '낮일'의 경우에는 '일'이 모음으로 시작되기는 하지만 조사나 어미 등이 아니라 명사이기 때문에 연음은 적용되지 않고, [난닐]로 발음된다.

115. 해설

**어휘 · 어법 (언어의 특징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무거운 침묵'의 특징으로 고정된 형

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고정된 형식이라는 것은 '무거운'과 '침묵'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 다른 말로 대체가 안 되며 앞뒤 순서를 바꾸면 부자연스럽거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 주는 예는 ④의 '뜨거운 눈물'과 '새파란 젊음이'이다. '뜨거운' 대신에 '차가운'을 쓰면 '차가운 눈물'이 되는데 이는 사용되는 말이 아니다. '차가운 목소리'는 사용하지만 '차가운 눈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물'도 다른 말로 대체가 되지 않는다. '새파란'도 '파란' 등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젊음이'도 '어린이' 등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따라서 '뜨거운 눈물'과 '새파란 젊음이'가 '무거운 침묵'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말들이다.

[오답피하기] ① '꽃다운 나이'에서 '나이'는 '외모' 등으로 대체된다. '높다란 나무'에서 '나무'도 '건물'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② '진정한 친구'에서 '진정한'은 '착한' 등으로 대체된다. '친구'도 '우정' 등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싹누런 들판'에서 '싹누런'도 '파란'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③ '차가운 공기'에서 '차가운' 대신에 '뜨거운'을 쓸 수도 있고 '공기' 대신에 '물'을 쓸 수도 있다. '막다른 골목'의 '막다른'도 '예쁜' 등으로 대체된다. ⑤ '팽팽한 대결'에서 '대결'은 '싸움', '관계' 등으로 대체된다. '가벼운 발걸음'에서도 '가벼운'은 '무거운'으로 '발걸음'은 '목소리' 등으로 대체된다.

※ 해설지의 정답표기는 출수형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16. 해설

**어법의 이해와 적용**  
 ①의 '조용히 하다.'는 동작성을 지닌 문장으로 명령문, 청유문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조용히 하자.'를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② '말다'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만 사용된다.  
 ③ 청유문의 주어는 화자를 포함한 청자가 와야 하며, 명령문의 주어는 화자가 아닌 청자만 가능하다.  
 ④ '줄이다'는 동작성을 지니지만 '넓다'는 동작성이 없기에 명령문, 청유문이 불가능하다.  
 ⑤ '먹다'는 동작성을 지니지만 수식하는 부사인 '너무 많이'가 정도나 상황을 나타내어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불가능하다.

117. 해설

**국어의 부사 이해**  
 '다행히'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처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행히'는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처럼 형태를 바꾸어서 서술어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설명한 '의외로'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 오답피하기

- ②의 '그리고'는 문장 부사 중 접속 부사이다.
- ③, ④, ⑤의 밑줄 친 부사는 문장의 어느 한 성분만 수식하는 성분 부사이다.

### 118. 해설

#### 시제 표현 요소 이해하기

해설 ㉓ ㉔ '내일 오더라.'에서 '오더라'라는 회상은 과거 시점인데 '내일'이라는 단어로 인해 회상하는 사건에 대한 지각이 미래 시점이 되기 때문에 ㉔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회상하는 사건에 대한 지각은 반드시 회상보다 앞선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오답피하기

- ① '-더-'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 ② '-더-'에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임을 의미하지 않고 '회상'이라는 화자의 서술 태도가 담겨 있다.

### 119. 해설

####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이해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담화가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화자의 의도 표현 등과 관련된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㉓의 '구청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라는 의문문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를 때라는 담화 상황을 볼 때 길을 묻는 의도가 직접 드러난 발화로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아, 목마르다.'는 귀가한 후 누나에게 발화한 상황으로 볼 때 '물을 달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추운 교실이라는 상황에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발화한 것으로, 창문이 열린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창을 닫게 하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의문형으로 표현되었지만, 동생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옷을 빌려 달라는 동생에게 빌려주기 싫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추운 겨울 선생님을 맞이하면서 하는 발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차를 드시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20. 해설

#### 품사의 구별 및 띄어쓰기

'전화받다 / 전화드리다'와 '전화 받다 / 전화 드리다'는 둘 다 가능하다. '전화'가 전화기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 전화기를 통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추상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화기'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구체적인 사물이므로 띄어 써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붙여 써야 한다. ①, ②, ④, ⑤의 '전화받다 / 드리다'에서 '전화'는 통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 그러나 ③의 '전화 받다'는 휴대 전화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실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 121. 해설

#### [시제의 이해와 적용]

상대적 시제는 관형사형에서 주로 나타난다. '나영이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태호를 맡거나 쳐다보았다.'에서 '지나가는'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 시제가 된다. 주문장의 시제가 발화 이전이므로 '지나가는'도 과거가 된다. 그러나 '지나가는'의 시제를 '쳐다보았다'와 관련시키면 현재가 된다. '지나가는'의 사건시와 '쳐다보았다'의 사건시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곧,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㉔에서 '마실'은 상대적 시제로 과거에 있어서의 미래가 된다. 또 ㉕의 '화사한'은 과거 속의 현재에 해당한다.

#### [오답피하기]

- ㉔ 문장 전체의 절대적 시제인 현재만 나타나 있다.
- ㉕ '안개로 인해'에는 시간 표현이 들어 있지 않다. 또 '걸리고 말았다'는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이므로 두 가지 시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 122. 해설

12. [출제의도] 지시 대상에 따라 인칭대명사의 종류를 구별한다.

<보기 1>의 설명을 바탕으로 <보기 2>의 ㉔을 보면, 문 앞의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는 상황이므로 이때의 '누구'는 미지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정칭 대명사로 파악한 ㉔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㉔은 자신을 낮추는 일인칭 대명사, ㉕은 미지칭 대명사, ㉖은 앞에 나온 삼인칭 주어인 할머니를 다시 받는 재귀대명사, ㉗은 이인칭 대명사이다.x95

### 123. 해설

#### 유의어의 용법 이해

해설 ㄴ의 '감사합니다'는 '~에게 고마움을 느끼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동사이다. 따라서 이를 형용사인 '고맙습니다'로 대체할 수는 없다. 반면 ㄷ의 경우는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 형태로 쓰여 형용사처럼 사용되었기에 '고맙습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오답피하기

- ① '감사하고'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형용사인 '고맙다'가 아니라 '고마워하다'라는 동사가 와야 한다.
- ② ㄴ에서는 '신'에 대한 감사이며, ㄷ에서는 '아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고마움의 대상이 다르다.
- ③ '감사하다'는 주로 높임의 대상에 사용하기에, 친구에게 사용하는 것은

어색하다.

124. 해설

어법의 이해

높임법과 시제, 복수형 등에 대한 지식과 활용을 평가해 보는 문제이다. ㉠에서 '아프다'의 주어는 '머리가'이기도 하지만 '엄마'이기도 하다. '머리가 아프다'가 서술절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은문장의 주어가 '엄마'인 경우에 서술절 '머리가 아프다'의 '아프다'는 안은문장의 주어 '엄마'에 맞추어 '아프시다'로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피하기

- ② '타고 계시다'라는 표현은 '타고 있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인지, 현재 택시에 타서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지 애매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타고 오는 중이시라고'로 바꾸면 택시를 탄 후 오고 있는 상황만 의미하게 된다.
- ③ '말씀'에는 '계시다'를 쓸 수 없다.
- ④ 엄마가 이모보다 더 윗사람이기 때문에, 엄마를 고려하여 굳이 이모를 높이지 않았다.
- ⑤ '너무 걱정들 마라.'라고 써도 문장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125. 해설

어법의 이해와 적용

풀이

㉠ 부사어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말의 용례로는 '다 잘들 있었어?'를 들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그동안 잘 지냈어?'의 '지냈어' 뒤에 '들'을 붙이면, '들'은 종결 어미 뒤에 붙은 꼴이 되어 '지냈어'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 주므로 ㉠의 용례가 된다.
- '소말돼지 ( )은 가축이다.'의 경우, 빈칸에 '들'을 넣으면 그 '들'은 '소, 말, 돼지'를 모두 가리키면서 동시에 '가축'에는 '소, 말, 돼지' 이외에도 같은 종류의 동물이 더 있음을 뜻하게 되므로 ㉠의 용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소말돼지 ( )은 가축이다.'의 빈칸에 '등'을 넣으면 그 '등'은 '가축'에는 '소, 말, 돼지' 이외에도 같은 종류의 동물이 더 있음을 뜻하게 되므로 ㉠의 용례도 될 수 있다.
- '과일은 배, 사과 ( ) 두 가지만 샀다.'의 경우, 빈칸 뒤에서 '두 가지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배, 사과'일 것이므로 ㉠의 용례가 된다.

126. 해설

혼동되는 어미의 쓰임

문맥으로 볼 때 한 걸음도 걸지 못하는 것은 자동차가 필요한 이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서는 '-니만큼'이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으)리만큼'이 쓰이는 경우는 어떤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이므로 '한 걸음도 걸지 못하리만큼 지쳤다.'와 같은 문맥에서 사용해야 한다.

127. 해설

규칙 활용의 이해

'가파르다'는 '가팔라', '가팔라서' 등과 같이 불규칙 활용하는 용언이다. '-르다'로 끝나는 용언 중 'ㄹ'로 활용하는 것을 'ㄹ' 불규칙 활용이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달다'는 '다니', '다네' 등과 같이 'ㄹ'만 탈락하는 규칙활용 용언이다.
- ② '밝히다'는 '밝히고', '밝혀서' 등과 같이 어간이 변하지 않는 규칙활용 용언이다.
- ③ '때리다'는 '때리고', '때려서' 등과 같이 어간이 변하지 않는 규칙활용 용언이다.
- ④ '담그다'는 '담가', '담가서' 등과 같이 '-ㅁ'만 탈락하는 규칙활용 용언이다.

128. 해설

- 1.<보기>에 제시된 맞춤법 규정을 확인한다.  
<보기>의 해설에서 설명한 것처럼 접미사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란, 곧 동사나 형용사로 파생될 수 있는 어근을 말한다. 이러한 어근의 형태를 고정시킴으로써, 그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하자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이다.
- 2.<보기>의 규정을 답지에 하나하나 적용한다.  
'빼죽거리다', '홀죽하다' 등의 형태가 있으므로 '빼죽이'와 '홀죽이'는 올바른 표기라고 볼 수 있다(①, ②). 한편,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 접미사가 붙은 말에는 '매미', '뽕꾸기', '동그라미', '부스러기' 등이 있다. '부스러거리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잘게 부서진 물건을 뜻하는 '부스러기'와는 관계없는 말이다(③, ④).
3. 답지가<보기>의 규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인가를 판단한다.  
'누덕'에 실제로 '하다'나 '거리다'를 붙여 보면 '누덕하다'나 '누덕거리다'와 같이 되는데 이러한 말은 없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129. 해설

어법의 이해

㉠에서 '-요'는 듣는 사람을 높이는 역할이 아닌, 꽃이라는 사물을 나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의 '백합이요'에서 '이다'라는 용언과 직접 결합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㉔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듣는 사람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피는군요'에서 '피는군'은 서술어, '나팔꽃은요'에서 '나팔꽃은'은 주어, '어서요'에서 '어서'는 부사어이므로 '요'와 결합된 말은 다양한 문장성분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는군'에서 '요'는 '피다'라는 용언과 결합할 때 '군'이라는 종결 어미의 뒤에 붙게 되었다. '살펴본다면요'에서도 '살펴보다'의 용언과 결합할 때 '면'이라는 연결 어미의 뒤에 붙게 되었다.

130. 해설

[품사의 구별]

'있다, 없다'는 (가)와 같이 평서형의 현재형에서는 형용사와 성격이 같다. 그리고 (나)와 같이 관형사형에서는 활용 방식이 동사와 같다.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때 '(으)ㄴ'이 아닌 '는'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와 같이 의문형에서는 동사와 같고, (라)와 같이 감탄형에서는 형용사와 같은 활용형을 보여 준다. 또한 (마)와 같이 '있다'가 명령형과 청유형을 취할 수 있는데 반하여, '없다'는 명령형과 청유형을 취하지 못하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내용과 달리 ㉔에서는 관형사형의 활용 방식이 형용사와 같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1. 해설

조사 사용의 이해와 적용

해설 '까지, 조차, 마저, 도'는 문장에 표현된 일이나 행동이나 상태가 기대하거나 예상한 범위를 넘어 이들 조사 앞에 오는 대상에 미치게 됨을 뜻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은 차이점도 가진다. 이와 같은 차이점과 더불어 '까지'가 '가장[極]'이나 '끝'의 뜻을 가진 'ㄱ·장'이 변한 것이며, '부터'가 'ㄷ다[付]'의 어간 'ㄷ-에 어미 '-아/어'가 연결된 것이고, '조차'가 '좃다'에서, '마저'가 '맞다'에서 만들어졌음을 고려할 때, '거리에는 개미 한 마리(도/조차) 없었다.'만이 적절한 표현이 된다.

132. 해설

동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의 구별

'어떤 물체를 소유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ㄷ의 '있다'이다. ㄷ의 '있다'를 '연필이 있다', '연필이 있어라', '연필이 있는 중이다' 등과 같이 활용시키면 표현이 자연스럽지가 않다. 즉 동사처럼 활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물체를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의 '있다'는 동사적 용법이 아니라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오답 피하기 ㉑ '어느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물다.'는 ㄱ의 의미이다. ㄱ은 '도서관에 있어라', '도서관에 있자', '도서관에 있는 중이다'와 같이 활용된다.

㉒ '어떤 물체가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ㄴ이다. ㄴ의 '있다'는 '책이 여러 권 있어라', '여러 권 있자'에서 알 수 있듯이 명령형이나 청유형 어미 등과 결합하지 않는다.

㉓ '일정한 범위나 대상에 포함되다.'는 ㄹ의 '있다'의 의미이다. 이 경우 '이름이 있어라', '이름이 있자'와 같이 활용되지 않으므로 형용사적 용법에 해

당한다.

㉔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는 ㄹ이다. ㄹ의 '있다'는 '양전하게 있어라', '양전하게 있자', '양전하게 있는 중이다'와 같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133. 해설

어법의 이해와 적용

[풀이]

<보기>에 ㉔의 풀이에 해당하는 용례는 없다. ㉔의 풀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인생은 나그네길.' 정도를 들 수 있다. 원래 문장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인데 '이다'를 생략한 것이다.

[걸림돌 치우기]

- ① 둘째 사례에 대한 풀이이다.
- ③ 넷째 사례에 대한 풀이이다.
- ④ 첫째 사례에 대한 풀이이다.
- ⑤ 셋째 사례에 대한 풀이이다.

134. 해설

어법의 이해

[풀이]

㉔와 ㉑의 구별은 지시 대상의 실재 여부와는 관계없다. 둘 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뿐이다.

135. 해설

표준어의 올바른 사용

해설 제11항의 규정은 겹받침 'ㄹ, ㄹ, ㄹ'이 어말 또는 자음 앞에 놓인 경우의 발음에 대한 규정이다. 그런데 '닭은'은 'ㄹ'이 모음 앞에 놓인 경우이므로 겹받침의 소리가 모두 나도록 [달근]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옳다.

오답피하기

- ① '할고'는 제10항의 규정으로 볼 때, [할꼬]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 ② '맑지'는 '제11항'의 규정으로 볼 때, [막찌]라고 발음해야 한다.
- ⑤ '밭지'에서의 '밭-'은 자음 앞이므로 '제10항'의 '다만' 규정에 따라 [밭:찌]로 발음해야 한다.

136. 해설

[맞춤법 규정의 이해와 적용]

'ㄹ' 받침 뒤라는 환경에서 같은 된소리로 발음되면서도 예사소리와 된소리로 구분하여 적는 근거는 한글 맞춤법 제53항의 규정이다. 같은 형태소가 'ㄹ' 받침 뒤가 아닌 환경에서 예사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 계열의 형

태소들(비의문형어미)은 예사소리로 적고,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 계열의 형태소들(의문형 어미)은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 즉, 의문형 어미 '습니까', '부니까'와 같은 경우가 있으므로 'ㄹ' 받침 뒤라는 환경에서도 된소리로 적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올게요', '거룩할지니라'는 종결 어미인데도 예사소리로 적고 있다.
- ③ '먹을까', '할까'는 낮춤 표현인데도 된소리로 적었다.
- ④ '어찌할꼬', '훤쓰나' 등은 옛말 어투의 어미인데도 된소리로 적었다.
- ⑤ <보기>의 문장들 중 특별히 완곡한 표현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다.

137. 해설

**[표준어 규정의 적용]**

기술자, 곧 장인(匠人)이라는 뜻이 살아 있는 말은 '미장이, 유기장이, 대장장이, 도배장이' 등이다. 미장은 '건축 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바닥 따위에 흙, 회, 시멘트 따위를 바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유기장은 '고리버들로 고리짜이나 키 따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대장장은 '대장일을 하는 기술자'를 뜻하며, 도배장은 '도배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을 뜻한다.

**[오답피하기]**

'종매장이'는 종매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종매 기술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종매쟁이'가 표준어이다. '소금장이'는 소금과 관계된 일을 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곤충의 이름이므로 '소금쟁이'가 표준어이다. 또한 '멧쟁이, 개구쟁이, 극성쟁이' 등에도 기술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멧쟁이, 개구쟁이, 극성쟁이' 등이 표준어이다.

138. 해설

**용언의 활용 방식 이해**

<보기>에서 제시된 대로 '있다', '없다'는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 품사로서의 활용 방식을 보이는 단어이다. '있다', '없다'를 <보기>에서 제시한 어미들과 결합시켜 확인하면서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에서 '없다'는 청유형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있다'와 활용의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우리 이 곳에 없자."라는 말은 내용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점에서 '없다'라는 말은 청유형으로 쓰면 어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없다'는 동사의 성격보다는 형용사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있는 밥', '있는 물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수 있으므로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② '없는 밥', '없는 물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수 있으므로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③ '사람이 없구나'와 같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감탄형 어미를 취할 수 있으므로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④ '이 곳에 있자.'와 같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청유형 어미를 취할 수 있으므로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39. 해설

**맞춤법 규정의 이해와 적용**

⑤ '어떻게 해'에서 '-게'의 모음 'ㅐ'가 줄고 나머지 'ㄱ'이 앞 음절의 받침으로 올라붙으면 '어떡해'가 된다. 'ㅎ'을 'ㄱ'이 밀어낸 것은 'ㄱ'이 '-게'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140. 해설

**어법의 이해 및 적용**

**[정답풀이]**

[보기]는 축약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그런데 ①에서 '가다'와 어미 '-아서'가 만나 '가서'가 된 것은 동일한 모음인 'ㅏ'가 겹쳐(어간 '가-'의 'ㅏ'와 어미 '-아서'의 'ㅏ'가 겹침) 둘 중 하나가 탈락한 경우이다.

**[오답풀이]**

- ②에서 '끓다'가 [끓타]로 소리나는 것은 어간 말음 중 'ㅎ'이 어미 '-다'의 'ㄷ'과 만나서 'ㅌ'으로 축약된 것이고, '끓지'가 [끓치]로 발음되는 것 역시 어간 말음 중 'ㅎ'이 어미 '-지'의 'ㅈ'과 만나서 'ㅊ'으로 축약된 것이다.
- ③에서 '먹혀'가 [머켜]로 소리나는 것은 어간 받침 'ㄱ'이 접사 '-히-'의 'ㅎ'과 만나서 'ㅋ'으로 축약된 것이고, '잡힌'이 [자핀]으로 발음되는 것 역시 어간 받침 'ㅂ'이 접사 '-히-'의 'ㅎ'과 만나서 'ㅍ'으로 축약된 것이다.
- ④ '주다'의 어간 '주-'의 'ㅈ'와 어미 '-어'가 만나 축약된 것이다.
- ⑤ '되다'의 어간 '되-'의 'ㄷ'와 어미 '-어'가 만나 축약된 것이다.

141. 해설

**어법의 이해**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 2]에서는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의 '요'는 둘 다 보조사로, 모두 생략해도 '마음은 더없이 좋아.'와 같이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만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보조사 '요'를 말의 중간과 끝에 붙인 것이다.
- ②의 '요'도 문장의 끝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 ③은 연결형이므로 '이요, 아니요'가 된다. 영어의 'YES'와 'NO'에 해당하는 긍정과 부정의 대답은 '예, 아니오'가 맞다.
- ④와 같이 '오'가 종결 어미로 쓰일 때, '설명, 의문, 명령, 청유' 등의 문장이 될 수 있는데, ④의 예문은 명령형 문장이다.

142. 해설

**음운 변화의 이해 및 적용**

해설 ㄱ의 '잇'이 '입'으로 발음되어 'ㅍ'이 'ㅂ'으로 변한 것은 형태소의 끝



에서 다른 음운으로 변한 예에 해당하므로 교체(交替)이다.  
 ㄴ의 '종로'가 [종노]로 발음되어 'ㄹ'이 'ㄴ'으로 변한 것은 'ㄹ'이 '종'의 'ㅇ'과 같은 계열인 비음으로 바뀐 것으로 동화(同化)에 해당한다.  
 ㄷ의 '숨'과 '이불'이 합하여 '숨이불'이 되었을 때, [숨니불]로 발음된 것은 '숨'과 '이불' 사이에 'ㄴ'음이 첨가(添加)된 결과이다.

### 143. 해설

#### 어휘 사용의 오류 파악

②에서 '푸르른'은 '푸른'이라는 표준어의 형태를 일부 바꾸어서 사용함으로써 어휘 사용이 잘못된 경우이므로 <보기>의 밑줄 친 '으시댄다'와 유사한 잘못을 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쫓는'을 써야 하는데 '쫓는'을 쓴 경우로, 단어의 의미를 혼동하여 어휘 사용이 잘못된 경우이다. '쫓는'의 기본형 '쫓다'는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라는 뜻이고, '쫓는'의 기본형 '쫓다'는 '어떤 자리에서 떠나도록 내몰다.'라는 뜻이다.
- ③ '뚜렷'은 '뚜렷해'에서 접사와 어미를 부당하게 생략함으로써 어휘 사용이 잘못된 경우이다.
- ④ '역전'의 '전(前)'은 바로 뒤에 오는 '앞'과 뜻이 같으므로, 이 경우는 같은 뜻의 말을 중복 사용함으로써 어휘 사용이 잘못된 경우이다.
- ⑤ '가리켰다'를 써야 하는데 '가르쳤다'를 쓴 경우로, ①처럼 단어의 의미를 혼동하여 어휘 사용이 잘못된 경우이다. '가리키다'는 '손가락 따위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리다.'라는 뜻이고,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거나 익히게 하다.'라는 뜻이다.

### 144. 해설

#### 어법에 맞는 표현 구분하기

<보기>에서 '되-'+'-어'의 경우 이를 줄이면 '돼'가 된다고 했다. ④의 경우 앞뒤 맥락을 통해 볼 때, '사용되어야 한다'를 줄인 것이므로 '사용돼야'로 쓰여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이므로 '돼라'로 줄여도 된다.
- ②의 경우 '훌륭한 교사가 되어고 싶어요'의 경우 '되어고'는 어색하므로 '돼고'가 아닌 '되고'로 써야 한다.
- ③ '훌륭한 사람이 되어겠니'가 아니므로(즉,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선어말 어미 '-겠-'과 연결된 것이므로) '돼겠니'가 아닌 '되겠니'를 쓰는 것이 맞다.
- ⑤ '참 안되었네'를 줄인 말이므로 '참 안됐네'는 맞는 표현이다.

### 145. 해설

#### 시제의 이해와 적용

상대적 시제는 관형사형에서 주로 나타난다. '나영이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태호를 멀거리 쳐다보았다.'에서 '지나가는'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 시제가 된다. 주문장의 시제가 발화 이전이므로 '지나가는'도 과거가 된다.

그러나 '지나가는'의 시제를 '쳐다보았다'와 관련시키면 현재가 된다. '지나가는'의 사건시와 '쳐다보았다'의 사건시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곧,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에서 '마실'은 상대적 시제로 과거에 있어서의 미래가 된다. 또 ㉡의 '화사한'은 과거 속의 현재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문장 전체의 절대적 시제인 현재만 나타나 있으며, ㉡ '안개로 인해'에는 시간 표현이 들어 있지 않다. 또 '걸리고 말았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이므로 두 가지 시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 146. 해설

#### 불규칙활용의 이해

'웃다'는 어간인 '웃-'에 어떤 어미가 붙더라도 어간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기에 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짓다'는 어간인 '짓-'에 붙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ㅅ'이 남아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여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예) 짓고, 지으니
- ② '돕다'는 어간인 '돕-'에 붙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ㅂ'이 '오/우'로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여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예) 돕고, 도와
- ③ '물다'는 어간인 '물-'에 붙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ㄷ'이 'ㄹ'로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여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예) 물고, 물어
- ⑤ '모르다'는 어간인 '모르-'에 붙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ㄹ'이 'ㄹㄹ'로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여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예) 모르고, 몰라

### 147. 해설

#### 표준어 규정의 이해와 적용

'고양이'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12개의 단어('숫-'이 붙는 단어 3개와 '수-' 다음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는 9개)에 속하지 않으므로 '수고양이'라고 원칙대로 적어야 한다. 그리고 돼지는 '수-' 다음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는 9개에 속해 있고, 접사 '암-' 과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였으므로, '수돼지, 암돼지'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 148. 해설

#### 한글맞춤법의 이해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한글맞춤법의 기본원리에 나타난 표준 발음과 맞춤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하는 문항이다. 소리대로 적는 표기와 어법에 맞게 적는 표기의 두 종류가 있음을 제시하고, 소리대로만 적는 경우 조사나 어미 등과의 결합 환경에 따라 같은 단어가 다르게 표기되는 혼란이 있을 수 있

문제은행

기에 이런 경우는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켜 표기한다는 것이다. ③의 ‘퍼서’, ‘폄다’는 ‘푸-’라는 원래의 형태가 아니라 소리대로 표기를 했기에 ㉠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먹어’와 ‘먹은’은 [머거]나 [머근]처럼 소리대로가 아니라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킨 ㉡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② ‘굳이’와 ‘같이’ 역시 [구지], [가치]처럼 소리 나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에 ㉡에 해당된다. ④ ‘미덥다’와 ‘우습다’는 어간 ‘믿-’과 ‘웃-’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의 사례이다. ⑤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인데, ⑤에서 한자 ‘老’를 ‘노’와 ‘로’로 적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하는 원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149. 해설

[표준어의 이해와 적용]

①에서 ‘지레’와 ‘목’이 결합된 단어를 지렛목이라고 표기하듯이 ‘이마쌀’은 ‘이마’와 ‘쌀’이 결합된 합성된 ‘이맛쌀’이라고 해야 맞고, ⑤의 ‘날개짓’도 ‘날갯짓’으로 해야 바른 표기이다.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는 ‘제삿날, 훗날, 갯날’ 등과 같이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하므로 ②의 ‘ 짹수날’은 ‘ 짹수날’이 맞고, 같은 이유에서 ③의 ‘기찻길’도 맞는 표기이다.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여 ‘수평, 수나사, 수농, 수사슴, 수소, 수은행나무’가 표준어이다. 그러나 ‘수랑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틀찌귀, 수돼지, 수평아리’ 등은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숫양, 숫염소, 숫쥐’의 접두사는 ‘숫-’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②와 ③의 ‘수키와, 숫염소’는 바른 표기이며, ①의 ‘숫돼지’는 ‘수돼지’가 바른 표기이다. 고유어끼리 결합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데, ④에서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바둑이, 절름발이’처럼 그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금박이’가 바른 표기이다. ⑤의 ‘이튿날’은 ‘이튿날’로 고쳐야 옳다.

150. 해설

[맞춤법 규정의 이해]

‘늘어나고’는 ‘늘다’와 ‘나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며,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붙임 1]의 규정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라고 한 ②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ㄱ’의 ‘가시오’에서 종결 어미 ‘오’는 ‘요’로 소리가 나지만,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는 [붙임 2]의 규정에 따라 ‘오’로 적었다.
- ③ ‘ㄷ’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것은 돌이요, 저것은 황금이다.’가 되므로 [붙임 3]의 규정에 부합한다.
- ④ ‘ㄹ’의 ‘떨어지고’는 ‘떨다’와 ‘지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며,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붙임 1]의 규정에 따라 그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 ⑤ ‘ㄹ’의 ‘먹어’를 ‘머거’라고 표기하지 않은 것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